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偉大한 太平洋時代 개막"

全大統領 어제 歸國 "巡訪성과 만족"

◇밝은 表情으로 14泊 15일동안 아세안 5개국 巡訪을 마치고 9일하오 귀국한 全斗煥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가 특별기트랩에서 환영나온 인사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있다.

資源과 技術등 協力素地 커

"함께成長" 새歷史 무르익어

全斗煥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泰國, 필리핀등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5개국巡訪을 마치고 9일하오3시40분 金浦착 귀국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을출발, 14泊15일간의 巡訪旅程을 모두마치고 영부인 李順子여사, 公·非公式수행원들과함께 보잉707특별기편으로 귀국한 全대통령은 귀국성명을 통해 『이번 본인의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交易과 자본및 기술의 협력은 물론 資源과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도 서로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對內外시련이긴 우리國民에 親善이상의 共感"

福祉國家건설로 信賴받는 世界속韓國 노력을"

이날 공항에 마련된 공식환영행사에서 귀국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全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은 자연자원 및 人力자원에 있어서 발전 과 성장의 潛在力이 풍부하며 우리나라를 비롯, 太平洋을 가운데 둔 모든 沿岸國들이 이 아세안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素地는 신속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협력이 성숙하면 太平洋지역의 모든 나라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번영의 새 역사를 펼쳐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그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太平洋시대」의 開幕』이라고 太平洋시대의 開幕을 선언했다.

全대통령은 『이번 巡訪을 통해 아세안국가들과 東아시아지역의 平和와 安定추구에 있어 역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이를위해 외교적協力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이 지역의 전망에 있어서 樂觀的인 기대를갖는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對아세안外交와 관련, 『지리적 위치, 문화적 전통, 민족적理想과 당면한 과제등 우리나라와 이들 아세안會員國들이 가지고있는 共感帶에 비추어 외교및 經濟등 각분야에 걸친 協力의 확대는 정중하고 신중해야할것』이며 『어디까지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正直해야 하고 同伴者的 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民主·正義·福祉국가의 건설은 우리의 民族史的 사명인 동시에 현실적當爲』임을 강조, 『우리 모두 민족적 긍지와 저력을 발휘하여 세계속의 한국, 그리고 신뢰받는 한국으로 발전해갈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면서 힘차게 전진할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歸國성명 要旨

본인은 아세안 각국지도자와의 회담에서, 그리고 본인일행을 맞이하는 訪問國국민들의 표정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存在로 投影되고 있는가를 읽을수 있었읍니다. 그들의 歡待는 오랜 友邦으로서의 친선과 友情以上의 것이었음이 분명했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공통의 이념에 대한 확인이기도 하였읍니다. 뿐만아니라 상호의 국가이익증진을 위해 보다 緊密하고 긴밀한 協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

이것은 분명 五千年民族史에 있어서 하나의 起點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려운 시련을 이겨낸 저력과 민족의 意志를 보여준 국민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찬사를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혼란과 불안정을 거듭하여 北韓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對處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세안회원국들의 그와같은 환대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제적 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오늘과 같은 존경과 환영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도 않았고 침몰하지도 않았읍니다. 우리는 시련과 挑戰을 …

對內外의 위협과 시련속에 서도 意志와 슬기로써 이를 극복하고 밝은 未來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격려와 신뢰의 박수를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미 각개별국가와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이번 본인의 방문을 계기로 交易과 資本및 技術의 협력은 물론 資源과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도 서로 힘을 합치기로 합의하였읍니다. 아세안국가들은 自然資源 및 人力資源에 있어서 발전과 성장의 潛在力이 풍부한 나라 이며 국민들의 의욕과 活力도 대단히 강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太平洋 沿岸 국가들이 아세안과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소지는 신속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할수 있겠읍니다. 이같은 協力이 성숙하면 太平洋 지역의 모든 나라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번영의 새역사를 펼쳐낼수 있을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偉大한 太平洋時代」의 開幕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 巡訪에서 본인은 아세안국가들과 東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추구에 있어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이를위해 外交的協力을 추진해 나가기로 …

한민족의 理想과 當面課題등 우리나라와 이들 아세안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共感帶에 비추어 外交및 경제등 각분야에 걸친 협력의 擴大는 당연한 歸結이라고 할수 있겠읍니다. 우리의 아세안 각국에 대한 協力의 擴大는 정중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同伴者的 이어야하고 상호신뢰를 基調로 삼아야 할것이며 정직해야 할것입니다.

協力과 參與를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스스로 더욱 富强한 나라를 이룩하여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발돋움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民主 正義 福祉國家의 건설은 우리의 民族史的 使命인 동시에 현실적當爲인 것입니다. 우리모두 民族的 矜持와 底力을 발휘하여 세계속의 한국, 그리고 신뢰받는 한국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면서 힘차게 前進할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共同理想 힘차게 前進"

어제 필리핀 出國聲明

【마닐라=李國鉉특파원】全斗煥대통령은 9일 상오 11시45분(한국시간) 아세안 5개국 마지막 순방국인 필리핀의 마닐라공항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3軍의장대를사열하고 필리핀 3府요인·각국외교사절·교민등 환송인사들과 작별인사를 나눈뒤 귀국길에 올랐다.

全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을 떠나기에 앞서 성명을 통해 『장구한 세월에 걸쳐 한·필 양국이 쌓아온 방위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필리핀과의 우호협력관계가 계속 확대 발전해 갈것을 확신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본인의 마음은 기쁘기 한이없다』며 『韓·比양국은 자유민의 의지와 두나라가 추구하는 공동의 이상실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야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본인의 2주간에 걸친 아세안순방의 有終의 美를 歡待의 나라이자 血盟의 나라인 필리핀에서 거두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필리핀의 전도를 축복했다.

巡訪성공歡迎

韓日友好증진

日外相 崔大使에

【東京9日=宋孝彬특파원】소노다(園田) 외상은 9일 崔慶祿대사와 李相振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청, 오찬을 같이하면서 韓日두 나라의 우호증진에 노력할것을 다짐했다.

소노다외상은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순방이 성공적으로 마쳐진것을 환영하며 이지역의 협력증진에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노다외상은 한일관계는 그특수성으로 어려운점이 많으나 한일우호협력은 아시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므로 더욱 증진되어야할것이며 순한 한일양국관계에서 더나아가 서방진영과의 협력관계라는 입장으로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스노베(須之部) 전주한대사, 오꾸라(小倉) 동북아과장이 참석했다.

美·蘇軍備경쟁 熾烈化

美海軍、核航母등 2천隻

80年代末까지

【워싱턴8日=聯合】美해군은 레이건행정부의 방위력증강계획에 따라 80년대 말까지 소련해군력을 능가하기위해 해군함정및 항공기건조5개년계획을 수립했다고 美국방성관리들이 8일 밝혔다.

이관리들은 이같은 대규모 함정및 항공기 건조계획이 오는82년부터 86년사이에 2척의 核추진항공모함과 14척의 核잠수함을 포함, 총 1백43척의 함정과 1천8백여대의 항공기를 건조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는 카터前행정부의 해군증강계획규모보다 75%나 더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관리들은 또 美해군이 4척의 아이오와급전함을 크루즈미사일 적재함으로 재활용하고 오리스카니와 본·홈·리처드등 2척의 항공모함도 재취역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들은 또 이미 캐스퍼·와인버거국방장관 앞으로 제출된 이 계획이 약 1천2백억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82회계연도 총 국방예산(2천2백20억달러)의 절반이상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덧붙였다.

蘇、베트남에 電子情報所

東南亞를監視

【워싱턴8日=聯合】소련이 東南亞에서의 美空軍과 海軍의 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베트남에 건설중인 거대한 전자정보수집시설이 소련기술자들에 의해 최종완료단계에 있다고 시카고·선·타임즈紙가 8일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방군사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베트남에 건설된 전자첩보시설이 모스크바가 지금까지 해외에 건설한것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임무를 띠고있는것으로 알려진 쿠바의 시설과 맞먹을것이라고 밝혔다.

캄란灣에 자리잡고있는 이 시설은 정보수집목적 이외에도 남지나해는 물론 인도양에서 활동을 강화해온 소련 해·공군의 지역통신센터의 기능도 맡고있는것으로 보인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또 쿠바의 전자첩보시설이 북미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듯 캄란灣의 시설도 조만간 필리핀의 클라크美공군기지와 수비크灣의 美제7함대사령부등 美해·공군의 활동상황을 감시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어 캄란灣의 첩보시설이 미군의 활동감시에만 국한하지않고 중공남부 특히 海南섬일대도 주요감시 대상으로 삼고있으며 소련은 이 시설에서 활동할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본국에서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北傀, 對日債務 1천2백억圓

6月末기한 30억圓 계속滯拂

【東京9日=宋孝彬특파원】북한은 6월말에 지불할 對日무역채무분할금 60억엔중 30억엔을 계속 지불하지 못하고있어 일본업계는 수출보험금을 신청할 움직임이 있다고 동산업관계자가 9일 밝혔다.

북한의 대일무역채무는 7백90억엔에 이르고있으며 연체이자를 합치면 1천2백억엔에 달한다.

79년 日·朝경제협의회와 북한과의 협의에 따라 북한이 갚지못한 이돈을 10년간 분할, 연2회씩 갚기로 합의했으나 이번에 또 원금을 갚지않아 문제가 됐다.

"臨時國會소집 不要"

權 民正사무총장 "現在로선 議題없다"

民正黨의 權正達사무총장은 제108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지않기로 방침을 결정한것으로 9일 알려졌다.

民正黨은 이날 임시국회소집에대해 『현재로서는 국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무슨 이슈가 있을때마다 관계常委를 열어 문제점을 논의했기때문에 임시국회에서 다룰만한 의제도 없다』고 말하고 『全斗煥대통령의 아세안순방결과는 外務委를 열어 외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될것』이라고 말했다.

權총장은 이어 『필요하면 국회를 언제든지 열고 필요없으면 열지않는것이 새시대의 국회』라고 말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야몬드
전 당
은 하
보석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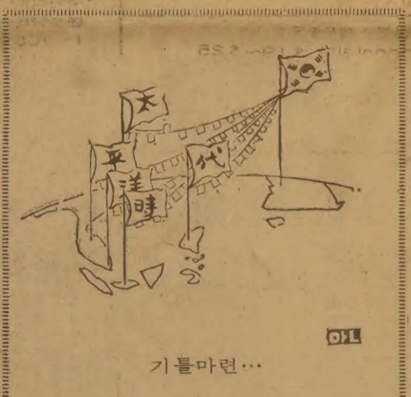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10
은 : 온스당
US 8.3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社会漫評



기틀마련…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9월10일 개최

日、韓日각료회담

【東京9日=聯合】일본정부는 9월10일·11일 양일간 東京에서 한국·일본 정기각료회담을 개최한다는 방침아래 교섭중에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했다.

地平線

어느 여학교에 불이 났더란다. 『불이야!』와 함께,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책상을 박차며 달려나가고,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은 책가방을 가지러 달려들어 왔다. 두 「물결」은 계단에서 부딪쳤다. 결국 화재라고도 못할 小火로 근 10명의 여학생이 다쳤다.

그 학교 교사인 친구로부터 이 얘기를 들으며 「安全敎育」을 생각했다. ▼그러나 얘기는 이것으로 그치지를 않았다. 소동이 수습된 뒤에야, 불이 교무실 옆 發刊室에서 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불은 곧 꺼졌지만, 직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경위를 학생들에게 알리자, 금새 「와!」하는 환성이 교실에 찼다. 불이 났을 때, 發刊室은 내일로 닥친 중간고사 시험지를 프린트 하느라 바빴었다. 시험지가 불탔으니 시험은 연기될 것이다. ▼불탄 시험지와 선생님의 화상. 이 두가지를 놓고 학생들은 환성을 지른다. 속담에 이르는 「빈대」와 「초가삼간」의 비유같다. 얘기를 마치며 친구는 암울한 표정이었다. 듣는 마음에도 충격이 없지 않다. 친구는 내뱉듯 말을 했다. 『어려서, 發刊室에 불을 지르지 않겠어? 그 못된 버릇을 고쳐먹을 짓이구먼』▼아침 신문에서, 서울시내 어떤 여학교 학생8명이 자기학교에 불을 지르려 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얼마전 만난 교사 친구의 얼굴이 떠 올랐다.

여학생들은 자퇴경고를 받은 앙심과 야간부 차별에 대한 항의를 위해 일을 벌였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나 … 없는 것일까. ▼이 …

어떤 여학교의 학생 3명이 극약을 먹고 교실에 쓰러져, 그중 1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겹쳐 있다. 약을 먹은 동기는 61명중 60등의 학과성적과 그에 대한 동정인 모양이다. 이만한 일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를 「빈대」대접하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학교가 「초가삼간」일수는 없고, 더구나 학생이 「빈대」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엄청나다. 이렇게된 까닭을 말하라면, 누구나가 진애기를 할 수가 있을줄 안다. 온교부장관의 말마따나, 4천만이 모두 교육평론가나 다를없으니까. 그러나 決然하게 매를 들었어야 했다는 反省을 찾기는 어려울것 같다. 학교와 어버이들, 나아가 온 사회가 「罔知所措」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어초회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韓·아세안 새同伴時代

全斗煥 대통령이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 5개국 巡訪을 떠나기 직전이다。이번 巡訪의 의의를 묻는 기자질문에 고위외교당국자는「共感帶의 설정」이라고 定義를 내렸다。「아시아의 뒷마당에 대한 확고한 再認識과 유대강화입니다。對美、對日또는 對非同盟외교만이 우리외교의 전부는 아닙니다。」이번 巡訪을 계기로 우리와 아세안간에는 다이얼로그(Dialogue·對話) 또는 포룸(Forum·廣場) 형태의 常設기구설립도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일단은 부딪쳐놓고서 볼 일입니다」

지난 15일간에걸쳐 東南亞에 「새한국」을 실은 全대통령이 아세안巡訪의 성과를담은 큼직한 보따리를 갖고 귀국했다。

순방기간동안 가는 나라마다 현지정부와 국민들의 熱烈的인 환영,공동성명으로 집약된 방문결산통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이다。그러나 이번순방의 기대이상의 성공과 중요한 의의등은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架橋를 튼튼히 이룩하고 이들국가들과의 同伴者的인 긴밀한 협력을통해 東南亞속에 한국의 뿌리를 내리며 나아가 80年代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開花시키는 디딤돌이될것이 분명하다。

建國이후 우리는 국가도자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외교戰略을 겪어왔다。또 이외교전략이 이따금 東南亞에도 눈을돌려 때로는 (일시적으로) 성공을,때로는 不發을 거듭해왔다는건 우연만으로 돌릴수는 없는일이다。

48년 建國직후 李承晩 대통령의 太平洋공동체구상이 그 첫번째다。당시新生독립국으로의 국제적지위확보를 위해 「永世외교」를외교力點으로 내건 李박사는 이왕 내친 김에 東南亞·太平洋세력을 求心點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위해 太平洋공동체를 구상, 自由中國과 필리핀의 제휴를 얻어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는 汎국제기구의 창설을 서두른바있다。

새로운關係 定立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이 유럽세력과 談合해서 소련의 팽창세를 막기위해 설립한 北大西洋조약기구(NATO·1949년3월)가 母體가 된것으로 알려져있다。

李박사의 구상은 그러나 2次大戰직후 국제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와 당초부터 너무나 방대한 발상,域內국가들의 엇갈린 입장등으로 끝내 霧散됐으며 그로부터 5년후、다시말해서 6·25動亂을 치르고 4년이 지나서야 民間단체에 불과한 아시아反共聯盟의 창설로 가까스로 命脈을이었을 뿐이었다。

두번째의 試圖는 64년의 아시아·太平洋 각료회의(ASPAC)를 [illegible] 제3공화국출범이후 朴正熙대통령이 1년8개월의 刻苦끝에 발현시킨 이 기구는 이 지역의 첫 結束기구이자 일본을 비롯한 濠洲、뉴질랜드、自由中國、越南、라오스 그리고 현재 아세안에 속한 필리핀、泰國、말레이지아등 10개국이 참여한 매머드會議였다는 점에서 한국외교의 괄목할만한 이니셔티브로평가되고있다。그러나 15년이지난 오늘의 아스팍은7개국이 脫退、현재는文化교류에만그쳐 永登浦區 근로복지회관8층에 위치한 國사무국집무실에는 일본과 自由中國대표가 각각1명씩 대표로 남아있을 정도로 有名無實해지고 말았다。

상호繁榮의 共感帶 형성

正規외교 窓口로 수십년걸릴 成果이룩

美·日偏重서탈피 東北·東南亞安保 連繫

외교란시대의 産物이다。그러나 시대가 바뀜에따라 함께 바뀌는 외교의 軌跡이 한데모아져 한 시대의 외교정책으로 收斂된다。잊혀진 東南亞、몇차례의 노크로끝난채 放置된 東南亞의 의미와 중요성을 再活시켜 한국외교의 진정한對東南亞정책을 정립시킬 필요는 이런데 있는것이다。全대통령의 이번巡訪을「뒷마당의 再認識」과정으로본 외교당국자의 표현은 正鵠을 찌른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再認識의 어프로치과정에서 나타난 이번巡訪의 방법과 매너는 刮目할만했다。全대통령과 5개국 아세안국가 頂上들이 차례로 발표한 공동성명은 모두가 資源 또는 經協·기술교류의 확대를 주요골자로 한다。과거의 이름뿐인 슬로건이나 「神聖同盟」類의 거창한 旗幟보다는 모두가 개발도상국답게 경제적 공동번영을 염두에두고 있다。또 아세안에의 加入 또는 새로운 機構창설등 기대할법한 형식논리보다는 당사국간의 交易多邊化를 일단 성사시킨후 그 위에서 最上의 협력증진을꾀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정치나 安保차원의 협력역시 이러한 경제적共感帶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는점에서 巡訪의의는 한결돋보인다。

東北亞와 東南亞의 안보적 連繫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1·12및 6·5對北提議에대한 아세안5개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이지역에서 對北傀 압도외교의 성공이란 측면에서 높이평가해야 할것이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이번 巡訪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頂上간의 交驩과 대화가 만족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이다。頂上간의 대화가 갖는 위력과 파급효과는 지난2월 韓美頂上회담을 통해 실증된바있다。정규적인 외교窓口를 통해서라면 몇십번의 회합또는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를 외교적懸案이나 滯症이 단 몇시간에걸친 頂上간의 대화를 통해 말끔히 해소된 것이다。하다못해 이번 아세안파의 공동성명에서 공통적으로 지지를받는 南北韓의 유엔同時가입 방식하나만 하더라도 유엔總會나 非同盟회의 또는 外相간의 접촉을 통했더라면 수년이 걸려도보장을 받기가 어려웠을지모른다。

공동성명은 頂上간의 대화를 낱낱이 담지는 못한다。대화이전의 공통된 분위기나 합의 또는 共感帶까지를 기술상 일일이 수록할수가 없다。

지난2월 韓美정상회담을 마치고 채택된 공동성명은 제13項에서 韓美두나라가 「環太平洋지역의 국제협력을 위한 상호노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힌바있다。

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非同盟국가다。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資源보유국이며 한例로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原木의 95%가 印尼産이다。싱가포르는 한국、자유중국、홍콩과 함께 해외수출확대에 심혈을 쏟는 소위 아시아개발도상국의 4人組그룹이며 이번韓·싱가포르공동성명은「자유市場경제의공동이념」에입각, 무리한경쟁을피해상호補完관계를갖기로 합의했다。泰國과 필리핀은 韓國動亂의 참전국이자 오늘에와서는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희구하는 나라다。

다시 말해서 全대통령의 이번 아세안巡訪은 80년대 한국외교의 대명사로 통하는 ▲非同盟외교 ▲資源외교 ▲수출외교 ▲對北傀우위확보외교를 두루 만족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닐수없다。이번 巡訪은 또지역별로는 對美외교와 함께 한국외교의 양대骨幹으로 치는 對日외교를 겨냥한中장기적布石의 하나로도 풀이된다。일본측 외신이 지례 다투어 보도하고 있듯

對日外交 겨냥한 中長期 布石일수도

이 이번 巡訪은 東南亞시장확보에 관한한 일본측에 대한 중대위협이 아닐수가 없다。對日교역적자와 경제적 예속성에 허덕여 온 한국이 어느사이 東南亞에 불쑥 진출, 자원확보와 교역면에서 의젓한 경쟁상대로 바뀐데 대한 일본측의 對韓警戒視角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아뭏든 이번 全대통령의 아세안歷訪은 지난번에 이은 또하나의 역사적 외교성과임에 틀림없다。이제 한국과아세안은 지난날처럼 疏遠한관계나 국제사회에서의 남남이 아닌 이웃이됐다。

우리로서도 지난날 越南敗戰으로 겨우 인식되던 東南亞에대한 이미지를 씻었고 아세안제국들도 한국이 성공한 개발도상국이자 東北亞의 反共보루라는점을 분명히 인정하게된것이다。따라서 한국과 아세안이一衣帶水로 이어진이상 앞으로가 중요하다。

全대통령의 巡訪으로 서로 손잡게된 우호협력관계를착실하게相扶相助와共存의차원에서굳혀나갈때아시아·태평양지역은 80年代의 국제정세를가름하는主役이될것이다。【金勝雄기자】

對北 우위과시한 상호協力의 展開

세계言論이본 全大統領巡訪 논평

◇9일하오 귀국한 全斗煥 대통령이 청와대로모터케이드 도중연도의 환영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있다。

한국、日의 經濟 代役

「6·5提議」등 國際的이해 획득

軍事장비의 供給國으로 발돋움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5개국巡訪에 대해 아세안국가들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언론은 상세한 보도와 함께 社說、해설、특집기사를 실고 巡訪의 의의및결과등을 높이 평가했다。

全대통령의 아세안巡訪 첫날인 6월25일부터 7월7일까지에 걸쳐 文公部가 종합한 각국언론의 반응을보면 아세안 5개국과 日本、印度、홍콩등 주변국및 세계의유수한 통신등 歐美언론등을 중심으로 총39개국에서 1백33개媒體가 3백69회에걸쳐 보도했으며 또이기간에 15개국 37개媒體가 총61회의 사설、해설、특집을 실었다。

巡訪初 아세안각국의 論調는 국내안정을 회복하고 한국을 제2의 경제번영으로이끌고 있는 全대통령의 지도력과 한국경제발전·선진기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巡訪을「全대통령의 성공적 외교行路에 또하나의 章」「상호협력관계의 새로운章」또는 「아시아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등으로 찬양했다。싱가포르의 南洋商報와 스트레이트·타임즈紙의 경우 사설에서「보호무역의 벽에서도 경제를 재진하려는 한국의模範에서 배워야한 점이있음」을 강조했다。

세계의 大通信들은 순방의 중요관심사를「쌍방간의 經協증진」과「對北관계에대한 아세안국들의 지지모색」으로 압축、분석했는데 로이터통신은『말레이지아는 한국이 언젠가는 이지역의 投資國으로서일본에도전할것으로보고 있다』AP통신은『全대통령의 이번순방은 한국과 非공산아세안국들과의 관계강화및 東南亞와 東北亞의 안정을 증진한것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日本언론의 論調는「全대통령정부의 안정을 內外에 과시하기위한것」「對日偏重자세를 탈피、개발도상국과의 관계강화를 겨냥한 새로운 외교전개 - 국제적발언권강화」「아세안과의 경제협력강화」등으로 이번 巡訪의 의의를 분석하고 한국외교의 배경을「최근에 있어서의 北韓의위신의 상대적低下」와「對北優位확보」에 두고있다고 보도했고 특히 朝日新聞은 특집기사(6월28일자)에서『일본을 좇아라、앞서라는 생각을 가진 한국의 東南亞진출』이라고 분석했다。

또 네덜란드의 NRC한델스블라드紙는『이제 한국은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역할을 代行할 가능성이크다』고 보도했고 印度의 인디아·타임즈紙는『한국이 뒤늦게 시작했으나 아세안을둘러싼 일에있어 印度를 능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시카고·선·타임즈紙와 캐나다의 시티즌紙는 全대통령의 對北傀경고발언을『원자탄제조능력보유』로 추측보도했고 영국의 더가디언紙는『한국의 防衛산업이 反共아세안순방으로 큰이익을 얻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또 홍콩의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는『일본의 안도적 경제에 위안감을 느낀 아세안이 한국을 일본을 견제하고 대신할 수 있는 나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상당수 해외論調가 일본과 비교보도를 했다。

한편 全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印尼의 인도네시아·타임즈紙는 사설을 통해『印尼보다 앞선 한국의 공업은 양국기술협력의 증진을 촉진시켜줄 것』이라고 보도했고 수아라·카리아紙는『양국頂上및 이상간의 접촉은 아시아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말레이지아의 南洋商報는 사설에서『한국과 아세안은 상호협력의 여지가많고 선진기술과 자원의결합이 가능하므로 이번 순방은 적절한것』이라고 논평했고 泰國의 방콕·포스트紙는『韓·泰양국간에는 경제관계와 交易을확대하는데합의했다』고말했다。

私學國庫지원 擴大

私學聯 民正과 懇談서 요청

民正黨은 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한국 私學財團 연합회 (會長 金炳三)와 私學육성방안에 대한 간담회를가졌다。

私學재단 연합회는 이자리에서▲私學에대한 國庫지원 ▲학교법인에 多額出捐者에 대해서는 특별예우▲관계稅法을 개정하여 개인 또는法人이 私學법인에 기부한 금액 전액을 出捐金으로 인정、非課稅▲私學법인이 買入하거나 양도하는 토지등에대해 선양도소득세및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줄것 등을 건의했다。

私學재단측은 또 작년12월16일 국무회의에서의결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중 학교의설립자와 그親族관계에 대하여 그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高校이상의 학교의長으로 취임할수 없도록 한것을 요청했다。

社說

새太平洋時代 열렸다

—全大統領의 빛나는 아세안巡訪成果

全斗煥 대통령은 그동안 온 국민의 기대와 국제적關心를 모은 가운데 진행된 14박15일간의 아세안5개국巡訪을 성공리에 마치고 令夫人과 더불어 공식수행원들을 대동, 어제하오 건장하고 밝은 모습으로 귀국하였다。

이번 頂上外交의 뚜렷하고 다방면적인 성과는 이미 국내외에 걸친 고무적定評을받았음이 명백하거니와 쉴사이없었던 길고 바쁜 巡訪日程에서 보인 정력적 노고가 커다란 보람을확인케했음을 同慶하여 마지않는다。무엇보다도 韓國으로하여금 앞으로 도래할「새 太平洋時代」에 찬연히 빛날「東方의별」이 되게하는 前向的可能性을 아로새기게 한점을 특기할 수있겠다。

「東方의별」로 비칠 우리 位置를 定立

全대통령은 일련의 頂上會談과 記者會見 그리고 視察여행과 각종 환영행사 참석을 통해 그의 숨김없는 소박한 인품과 經綸있는 大度로하여 5개국 지도자및 2억6천만 현지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것으로 알려져있다。全대통령을 수행했던 각료들과 삼모진 또한 상대방과의 접촉·대화에 있어 頂上會談의 합의정신을 實質化하는 방향에서 상호理解를 深化시켰고 앞으로의 協力태세를 다짐한 기여가 컸다고 평가된다。

바야흐로 韓國과 아세안 5개국간에는 상호補完的 協力을 다지는 새時代 진입의 整地作業이 이룩된 셈이다。全대통령巡訪은 頂上레벨의 개인적 친분을 돈독히 했으며 이르는 곳마다 현지 각국민속에 「코리아 熱風」을 보급시킨 것이 가장 마음든든한 보장으로 되었음을 헤아리게한다。

政治·外交·安保面의 여러가지 成果에서 基調로 된것은 韓國과 아세안諸國간의 다각적인 共感帶형성이며, 또 공통적 安保인식의 확립이다。한결같이 平和와 安定속에 開發및번영을 추구한다는 目的의식이 일치한것은가장 소중한 協力증진의 바탕으로 되어있다。쌍방은 또 같은 開發途上國이고 비슷한 歷史的經驗을 가졌으며 開放的 自由市場經濟를 유지한다。나아가서 아세안5개국은 非同盟外交를 추진하면서도 현실적인 安保위협의 來源이 어디인가를 명백히 관측하는 공통적 입장에 처해있다。

政治·外交·安保에 뜨거운 共感帶형성

이러한 기반위에 全대통령과 訪問國頂上및 首腦人士사이의 共同聲明은 韓半島를 주축으로한 東北亞의安定과 平和가 東南亞의 그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있음을 확인한 것이다。한편으로 韓國의 平和統一外交政策과 南北韓유엔同時加入案 그리고 全대통령의 1·12및 6·5對北提議에 보는바와같은 對話·交流추구 노력에 대한 아세안諸國의 지지가 천명되었고, 다른한편 韓國은 아세안友邦들의 對印支半島政策을 포함한 對外政策과 安保的 經濟感에 대한 지지를 다짐한 것이다。이는 우리나라 非同盟外交의 多邊的 積極化를 내다보게 하는 동시에 國際政治무대에서의 상호協力증진을 확신갖고 展望케하는 좋은계기로 되었다。

그리고 安保協力의 구체화문제는 아세안諸國의 동의하지 않은 立場條件에따라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과제라고 느끼게했으나 모든 경우에 情勢判斷의 基調一致가 중시되어 마땅하다고 본다。

全대통령 巡訪外交의 두드러진 성과 중에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개척여지를 바라보게하는 經濟協力의 증진이 유난하게 부각되어있다。주지하는바와 같이 아세안諸國은 세계屈指의 부존資源과 풍부한 人的資源 그리고 폭넓은 市場性을 지니고있다。한편 韓國은 같은 開途國이면서도 그동안의 工業化경험과 技術人力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 合作投資의 新局面개척、나아가서 새마을운동의 경험및 기술이양을 다짐할수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쌍방간의 經濟協力이야 말로 부담감없는 同伴者的 상호補完관계의 능률한 진전을 보장할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무한한 經協增進과 同伴者的 相互依存

우리는 또 韓國과 아세안友邦國들이 일부先進國들의 보호무역주의에대한 비판 그리고 新國際經濟秩序를 위한 지향에 있어 인식 일치를 보였다는 사실을 주목한다。아세안諸國의經濟開發에 대한 참여와 協力의 자세에 있어 일부先進國의 행태에 드러난거래상의 高姿勢라든지 技術이양의 인색성등 편향은 韓國의 同伴者的 자세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쌍방간의 개별적인 經協증진을 위한 政府次元의 협의、民間企業체의 접촉이 활기를 띠게 되리라고 내다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항시友好·親善을 앞세운 同伴者的 상호補完관계의 定着에 優先順位를 설정해야 할것으로 믿는다。현지의 社會經濟的 충족과 人的資源開發 협조에서도 언제나 유의할 바라고 생각한다。그리하여 全대통령이 표현한바 「새太平洋時代」의 개막에 있어 아세안國들의 協力과 韓國의 活力이 결합을 과시하도록 최선을 기할것이다。況太平洋地域의 世界經濟中心地域化는 그다지 먼 앞날이 아닌것으로 관측된다。

全대통령의 아세안友邦國 巡訪成果가 크고 두드러질수록 일련의 共同聲明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하는 積極的인 補完노력이 우리의 現實的 日程에 올라있다고 느낀다。이를 위해 開發과 近代化의 본보기로서 우리 자신의 自體確認을 실천화하는 가운데 의 분발이 촉구되는동시에, 科學技術의 향상과 축적에 관한 政策的配慮도 획기적인 개선을 증명해야할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와 아세안友邦들의 實質協力증진에 대하여 北傀등 일부 바깥 세력이 감시와 방해공작에 출동을 느끼게될 가능성이 상존하지 않을수 없다。다방면적인 최강자세정비에 빈틈이 없어야 할것이다。

우렁찬 새前進위해 슬기와 團結보이자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질것은 全대통령이 귀국 성명에서 지적한 바「세계 속의 韓國 그리고 信賴받는 韓國」으로서의 發展을 위한 우리 자신의 단결된 전진이다。또 아세안友邦國들의 「協力의 확대」「공동하고 심층」해야 하며「어디까지나 同伴者的이어야하고 正直해야한다」는 것이며 相互信賴를 基調로 살아야할것」이라는 當爲性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新生·開途國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活力과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民族的 自矜心에 관하여 매우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全대통령의 이번 아세안巡訪은 東北亞와 東南亞의 平和와 安定및 繁榮의 공동추구에 돋은한 共感帶의 표방을 가설하였음을 확인케 한다。나아가서「위대한太平洋時代」의 前提를 밝게 내다보게하는 다방면적인 協力의 同伴者的 상호補完관계에 입각해야한다는 當爲性을 일깨우게 한 것이다。

국가발전위한 지도자간담회

정신文化院서 매월 2回개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개최된 제3차 국가발전을 위한 지도자간담회。

국가발전을 위한 제3차지도자 간담회가 각계각층의지도급인사 50명이 참가한가운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城南市雲中洞)에서 열리고있다。

4박5일 일정의 이 지도자간담회는 정신문화연구원의 주관으로 지난 6월1일 제1차 간담회가 열린이래 매월 두차례씩 연말까지 계속되는데 한기에 50명의 지도급인사가 참가한다。참가대상은▲행정부에서는 장·차관 ▲정계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당간부 ▲사법부및 검찰은 각급법원장 검사장 ▲교육계는 각대학의 총·학장 ▲언론계는 발행인 편집국장 그리고 ▲財界 종교계의 최고지도자등이다。

이번 제3차에의 참가인사는 李承潤재무부장관을 비롯、李種浩원호처장、金埈成한국은행총재、崔元碩東亞건설사장、俞虎濬한국기독교지도자 협의회회장등。이들인사들은 지난6일 同연구원에 들어와 7일엔 主體的民族史觀의 정립、8일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과 발전과제、9일엔 새국민상과 가치관의 정립을주제로한 대화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가한 俞虎濬목사는『새역사의 지표를 향한 대화의광장으로서 자기省察의 좋은기회였다』고 말하고 이같은 모임이 자주개최되기를 바랐다。제3차간담회는 10일상오 전체토의를 끝으로 폐막된다。

政局往來

◆국회가 열릴것으로 보는모양

국회는 9일 丁來赫의장의 出國을 앞두고 總務團이 오찬을 함께하는 한편 임시국회소집문제와 관련、李鍾贊 民正黨총무가 高在淸民韓黨·李東鎭국민당총무와 별개의 연쇄접촉을 갖는등 부산。

이날 국회귀빈식당에서있은 議長團과 總務團의 연석오찬에서 丁의장은 『내가 외국에 나가있는동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두 부의장께서 수고해달라』고 蔡汶植·金殷夏부의장에게 부탁했는데 이를두고 高총무는 『丁의장은 임시국회가 열릴것으로 보는모양』이라고 我田引水式풀이를 하기도。

한편 이에앞서 李 民正黨총무가 各黨총무들을 차례로찾아다닌 개별연쇄접촉에서는 총무회담일자로 高총무가 今週末을, 李총무는 오는13일을 각각 주장한끝에 오는13일로 낙착。

◆지금 열어서 무엇하자는거냐

權正達民正黨 사무총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제108회임시국회소집에 대해 『지금 국회를 열어서 무엇하자는거냐』고 反問。

그는 이날 기자들의 물음에 李鍾贊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他黨의 국회소집 署名움직임을 확인하면서 『국회란 총무끼리 타협해서 열어야지 서명을 받아서 여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

權총장은 『民韓黨에서 서명받는다는 얘기는 듣지못했다』면서 『來週 총무회담에서 열어야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얘기할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국회를 연다는것 자체보다 무얼 얘기하느냐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고 反問하면서 『무조건 열어놓고보자는 式이나 한일도 없이 억지로 연다는것은 새시대에 맞지않는 非合理的인것』이라고 강조。

◆民韓、두번째 院外위원장모임

民韓黨은 9일상오 서울汝矣島당사에서 3·25總選후 두번째로 院外지구당위원장회의를 열고 院外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

34명의 院外위원장중 21명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劉致松총재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院外위원장들의 고충을 잘알고 있는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辛相佑사무총장은 『힘든 여건이지만 최소한의 有給黨員을 확보、지구당조직운영보조비로 10만원씩을 지급하면서 계속 증액지원을 약속했다。

辛총장은 이어 『院外지구당에서 주민의 사용 난영할 지역개발사업을 파악、추진한다면 중앙당도 적극뒷받침하겠다』며 『중앙당사의 사무총장실을 개조、院外위원장용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이날회의에서 院外위원장들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전의했는데 沈完求위원장(釜山·蔚州)은『黨報를 빨리 발간하여 배포해달라』、朴致領위원장(馬山)은 『당원훈련계획을 조속히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柳총재、브라질下院의장과要談

마지막 訪問地인 브라질에 9일상오 (한국시간) 도착한 柳致松民韓黨총재일행은 도착즉시 브라질下院의장을 40분간 예방。

金鉉圭·孫泰坤의원과 함께 마루케삼의장을 방문한 柳총재는 『의회를 중심으로 양국관계가 보다 가까와지기를 바라며 특히 상호간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일이 있으면 의회가 앞장서서 돕도록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마루케삼議長은 『앞으로 국회의원 교류를 통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하고 『한국의 정당은 몇개이며 民韓黨의 석은 얼마나』고 묻기도。

마루케삼議長은 柳총재가『한국인의 人心과 동양적情緒를 느끼고 휴전선의 긴장을 직접보기위해 한번 訪韓했으면 좋겠다』고 권유。

柳총재일행은 이어 이날 上院을 방문하고 낮에는 브라질 하원부의장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 中南美순방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서명받아 임시국회 召集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아"

아이슬란드 駐在 北傀大使 현지부임

【서울=聯】 아이슬란드주재 北傀大使 吳명식이최근 현지에 부임했다고 8일 北傀방송들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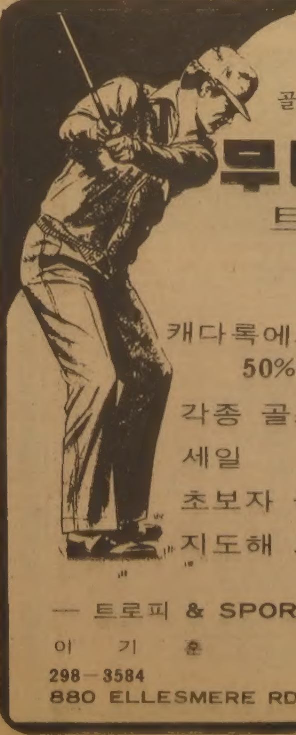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653A BLOOR ST. W.

☎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침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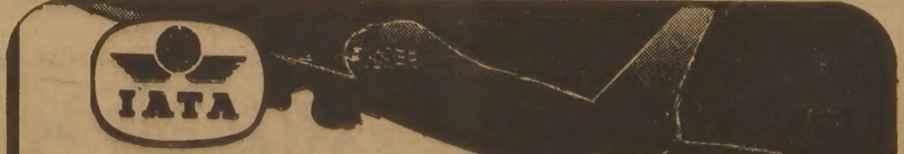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IATA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포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IL4

김창범 536-2155·2156 (R) 429-7580

the Permanent

◇주택

● Finch/McCowan $134,000

● Queen/Woodbine $139,000

● Victoria Pk./Danforth $149,000

◇사업

● 가게(주 $4,000)+건물 $99,000

● 꽃가게 (1주6일 · 10am~6pm) $14,500

☆주택 2차 모기지를 1차 모기지 이자율로 알선해 드립니다.

481—3443 (사무실)

745—5485 (집)

1901 Yonge St. Toronto

황 순 일

the Permanent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Real Estate.

國會도서관

국민의 「知識寶庫」로 발돋움

국회도서관이 국민의 도서관으로 발돋움할것인가。미국의 의회도서관이나 일본의 국회도서관과는 달리 천덕꾸러기취급을 받아온 국회도서관이 전국민이 마음놓고 드나들수있는 종합적이고 권위있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할것같다。

국회는 앞으로 汝矣島의사당 구내 5천평의 대지에 총건평 1만7천평의 국회도서관으로 신축、일반인에게도 도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국회는 83、84년 2년간에 걸쳐 도서관건물을 완공한다는 구상아래 우선 내년도 예산에 도서관설계비로 2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위한 자료조사차 金斗植관리국장이 10일 미국과 일본으로 떠난다。

국회는 이에앞서 작년에 관리국장、도서관직원、서울大 건축과교수등 3명으로 사전조사팀을 구성、세계각국의 도서관 건물을 살피게하여 기존자료를 수집한바있다。

이들이 작년 9월에 작성한 도서관 신축계획은 開架式書庫 2천4백평、閉架式書庫 6천4백80평등 8천8백80평의 서고를 포함、1단계로 1만3천평、2단계로 4천평등 모두 1만7천평짜리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다。세건물의 書庫는 국회의사당 지하실을 이용하고있는 8백79평의 현서고보다 10배나 된다。

현재 국회도서관의 서고는 12개의 좁은 방으로 나뉘어져있다。열람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서관직원이 책을찾아 이방저방으로 헤매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다 방이 습기차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져 직원들이 골머리를앓고있다。

곰팡이가 슬까봐 제습기를 24시간 가동하고 그것도 부족、나프탈렌을 곳곳에 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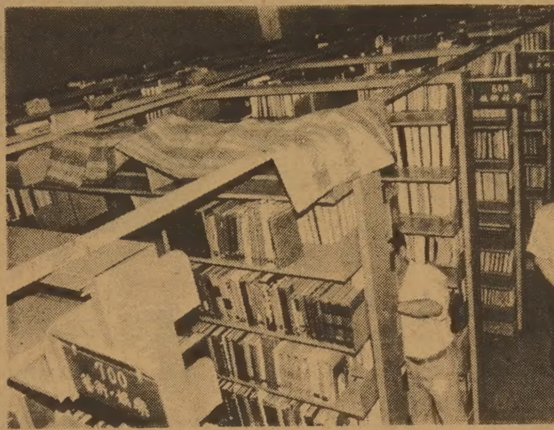
書架에는 3분의1정도의 책만꽂아 같은 종류의 新刊서적을 꽂을공백을 남겨두어야 한다。현재는 그럴만한공간적여유가없어 서가마다 책들로 가득차 있다。

成宅慶사서국장에 의하면 현재의 시설로는 국회도서관의 蔵書53만여권을 수용하는데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연말까지는 완전포화상태가되어 책꽂을곳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52년 임시수도釜山에서 장서 3천6백여책의 소규모로 출범한 국회도서관은 29년간 천대속에서 꾸준히 명맥을이어왔다。遷都때 서울로 옮겨 중앙청에서 셋방살이를 하다 太平路에있는 舊국회 제1별관에 겨우 정착했다。5·16직후 학생과 일반시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으나 63년 6대국회가 출범하면서 장소가 좁아 일반인의 출입이금지됐다。

이해 11월 국회도서관법이 생기면서 도서과、열람과등2개課에 불과했던 기구가 2局8개課로 확장됐다。장서도 연간 2~3만권씩 늘어나 太平路맞은편에 있는 제4별관 2~4층을 이용하게 됐다。

議事堂구내 매머드新築계획 本格化



◇汝矣島 국회의사당본부건물 지하실에 자리잡고있는 국회도서관의 서고。장마철에는 천장에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는등 곁방살이의 설움을 면치못하고있다。

큰짐을 사이에두고있는 남편을 겪으면서도「汝矣島독채건물꿈」에 젖었으나 번번이 예산부족이란 벽에부딪쳐 꿈이 실현되지못했다。75년 국회의사당이 汝矣島로 옮기면서 예산관계로 도서관건립계획이 보류되자 또 다시 두더지생활을 면치못하게 됐다。

국회도서관은 수년전부터 연간구입도서수가 6만여권에 이르고있다。共産圈관계 서적을 비롯 사회과학부문의 [illegible]모있고 귀중한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한 도서관이됐다。

1만7천坪규모 84년까지 完工키로
누구에게나開放 세계적水準으로

현재 53만여권 地下室에…습기등 管理어려움

현재 국회도서관의 이용자들은 국회의원과 정부공무원、대학교수、대학원생、연구소직원등으로 극히 제한되어있다。

이들 중에도 열람증을 발급받은 소수만이 자유롭게이용이 가능하고나머지는의사당구내 출입이 어렵고 경비관리상 정문에서 국회직원의면회형식을벗어야한다。

미국의회도서관이나 일본국회도서관은 국민 누구나가 활용할수 있는 국민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있다。국회도 이를 모델로 신축도서관건물의 정문을 大路변에 따로 마련、국민들이 이 문을통해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어느나라고 議會도서관은 그나라 도서관의 센터구실을 한다。미국의회도서관은 장서7천만권、직원수 5천여명、총건평 10만여평인데 그것도 부족、건평10만평의 제2별관을 신축중이다。또 장서 4백만권、직원 8백여명、건평 2만2천여평의 일본국회도서관 역시 현재와같은 규모의 신축건물을 금년에 착공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서 53만여권、직원수 2백여명의 우리나라국회도서관은 의사당 본관건물 지하실에 8백여평의 서고가 있을뿐 사무실은 의사당건물 5층에 떨어져있어 도서관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못하고있다。

국회도서관 직원들은 시설의 불편때문에 도서관자료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와하고있다。

10일 출국하는 金斗植관리국장은『도서관 건물은 책의 荷重때문에 특수시설이 필요하다』면서『도서관신축비는 기본설계가 완성돼야 산출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건물을 완공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李鍾贊국회운영위원장은도서관신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위해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도서관관계자들은 이번에야말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건립할 꿈에 차있다。

李위원장은『국회도서관이 일반인에게도 개방、국민도서관의 성격을 띠게되면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에 기증되어 왔던 희귀서、귀중본등이 국회도서관쪽으로 몰려들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도서관은민족자산의 보호기능까지 겸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도서관은 예산등의 어려움속에서도 太平路시절부터 한국학관계、독립운동사등 무게있는 자료집을 여러차례 발간한바있다。【李在武기자】

出版情報

韓國地理誌발간 활기

뿌리깊은나무社 「한국의 발견」出版준비

전문가들위한「韓國地誌」와 달리 일반大衆대상 各市道別 11권으로
地方전통·특색등 기록…理解높여

종합적인 韓國地理誌의 발간이 활기를 띠고있다。

지난5월에는 國立地理院이 東國輿地勝覽이후 5백1년만에 우리나라의 국토、자연、인구、문화등을 종합기록한「韓國地誌」를내놓은데이어「뿌리깊은나무」社는 금년말이나 내년초 출판예정으로 역시 비슷한 성격의 지리서인「한국의 발견」(假題)을 준비하고있다。

「한국의 발견」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의 地誌를 총망라하는것은「韓國地誌」와 다를없으나「韓國地誌」가 극소수의 전문가들을위한 책으로 1천부 한정판인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반대중의 필요에 부응한점이 크게 다르다。또「韓國地誌」가 官誌의 성격을 띤다면「한국의 발견」은 民誌로서 근대화과정에대한 민중의 염원같은 것을 대변하게된다。

「한국의 발견」은 한국의 11개 시도에 맞추어 11권으로 구성되는데 각권은 총론과 각론및 부록으로꾸며진다。총론은 해당지역의 전문가 (주로 교수) 5~6명이 그 지방의 언어 (방언)、풍속、지리、문화등을 설명하고 각론은 각 군과 시의 최신지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지방의 연혁、연보、통계、기관명등을뿌리깊은나무의 편집진들이 엮어낸다。

부록으로는 각종의색인、중요시설의 전화번호등을 싣게된다。각권2백50~3백페이지。

이 지리서에는 도합 3천장의 사진이 수록되는데 여기에는 옛사진과 고지도등은 물론 최근의 사진들도 포함된다。

뿌리깊은나무의 韓彰璂사장은『선진국에가면 조그마한 지역에도 그 지방의 전통과 특성을 기록한 지리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이 너무부진하여 자기고향의명소도、사적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는 경향이있다』며 이런풍조는향토애의「결핍현상」을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지리서의 개발이 단순히 향토애만 낳는것이아니라 지역간의 수평적인 이해를 촉진、지역감정을 완화할것이라고 말했다。

韓씨는『작년여름 월간 뿌리깊은나무가 없어진후 그 인원들을 해체하지않고 함께 일할수있는 기회를찾다가 이런 지리서의 개발을 구상하게됐다』며 작업을 하다보니 너무 강그리 훼손되는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눈이가 이에대한향수같은데 역점을 두게됐다고 밝히고있다。【辛】

文人들에 海外시찰 기회

문예진흥원 1차로 32명

중견문인 32명이 해외나들이를 하게됐다。

문예진흥원은 中堅文人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찰및 해외연수파견계획을 세워、그 첫번대상자로 9월16일과 11월20일사이에 시인、소설가、극작가、평론가등 중견급 文人 32명을 선정했다。이계획은 우리나라문인들을 해외의 다양한 文物및 해외문화예술인들과 접촉케해서 우리문화와 외국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교류하게 하기위해 마련된다。이 32명의 문인은 4개반으로 나눠서、각 2주간씩 동남아·中東·유럽등 11개국 12개처를 시찰한다。

이들 4개 시찰단은 각 종합문예지의 주간 또는 편집인의 인솔아래 여행하게 되며、해외여행의 경비일체는 문예진흥원 기금으로 지원된다。

이들은 自由中國、印度、泰國、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중 1개국에서 3박4일、사우디(리야드·다란)、쿠웨이트、아랍토후국중 1개지역에서 3박4일、이탈리아、그리스중 1개국에서 3박4일、프랑스 파리에서 4박5일을체류하며 각 지역의 文化와 풍물을 살펴보고 문화예술인을 만나게 된다。

이 32명의 문인은 吳學榮씨 (月刊文學)、李根培씨 (韓國文學)、金國泰씨 (現代文學)、洪榮鐵씨 (文學思想) 등 4개 문예지 주간·편집인들이 추천한 중견문인들중에서 문예진흥원측이 해외여행의 기회를 갖지못했던 문인들을중심으로 선정한 40대의 문인들이다。문예진흥원측은 첫번 시찰단의 해외시찰 효과가 높으면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진행할것을 밝혔다。

교육哲學硏 발표회

한국교육학회교육사 교육철학연구회 (회장金丁煥) 는 제1백13회 연구발표회를 11일하오3시 高大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海外文學

【본ー南汀鎭특파원】 獨逸의 2차대전 敗戰이 가져온 참담한 상황을 소재로 한 희곡「門밖에서」로세계적인 작가로 각광을 받았던 볼프강·보르헤르트 (1921~1947) 의 탄생6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행사가 西獨에서 펼쳐지고 있다。볼프강·보르헤르트는「門밖에서」를 25세되던 해인 1946년에 써내고 그 다음해 스물여섯의 짧은 나이로 2차대전중에 얻은 중병으로 숨졌던 '화제의작가'다。

戰爭의 참혹성 告發한 「門밖에서」作家

볼헤르트 誕生60周

敗戰독일의 彷徨그린 戲曲

「喪失世代」기수 26세로夭折

보르헤르트는 그 자신이 겪은 전쟁의 경험과 전쟁의 한피해자로서 자신이 당한 참혹한 체험을 피맺힌 목소리로 고발하는 이른바「喪失世代—歸鄕文學」의 旗手로 유명했다。「門밖에서」는 수백만명의 독일병사들이 포연속에서 사라져 간 2차대전과 전쟁이끝난뒤 잿더미속의 暗黑期로 떨어져버린독일 사회로 돌아온 兵士들의 절망과 방황을 주제로 했다。이 희곡은 47년1월에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되고、47년 11월에 함부르크에서 무대에올려져 세상에 알려졌다。「門밖에서」는 전쟁과 敗戰의 악몽속에서 시달리던 당시의 젊은 지식층에게 크게 호소돼、젊은 희망과 靑春을 송두리째 전쟁에 빼앗긴 젊은이들의 선풍적인 지지를 일으켰었다。그후 보르헤르트는 계속 독일 敗戰世代의 절규를 소재로 한 희곡작품과 詩를 써서 남겼고、대표작이며 출세작인「門밖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32개국어로번역돼 세계에 소개됐다。

보르헤르트는 국민학교교사를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청소년시절부터 책방점원생활을 하며 희곡을 탐독하고 연극에 심취했다。스무살되던 해에는 마침내 배우가 되어 연극에 참가하게 되나 몇달도 지나지 않아 軍에 징집돼 東部 전선으로 배속돼서 전쟁의 포연속에 파묻혔다。그는 전쟁도중 황달병에 걸렸는데、이 병이 군대이탈을 위한 꾀병으로 간주돼 영창생활을 하는등 고통과 번민에 가득찬 군생활을 지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45년 봄 프랑스군에잡혀 전쟁포로로 수용되고、거의 죽어가는 몸으로 수용소에서 도망쳐 나와 고향 함부르크로 돌아왔다。戰後에는 극장의 보조원으로 일하며 희곡을 써서 크게이름을 날리지만、2년도 채 되지못해 전쟁중에 얻은 질병으로 극히 쇠약해져 눈을 감고 말았다。

그의 희곡「門밖에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베크만은 바로 보르헤르트 자신의 分身으로、전쟁의 無意味함과 잔혹함을절규한 戰後文學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르헤르트의 이 희곡은 작가자신이 직접 몸으로 겪은 전쟁의이야기와 敗戰狀況을 썼다는 점과、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스물여섯살의 짧은 나이에 죽었다는 비극적인 人生의 드라마때문에 더욱 독일인의 가슴에 남고있다。

◇獨逸戰後文學의 旗手였던 볼프강·보르헤르트。그가 26세의 젊은나이로 죽던해의 모습이다。

文豪의 名言

그대는 스스로의 두뇌로 이해 할수있는 모든 종류의 책을、최종적으로 음미할수있는 試金石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책은 誠實하고 바르다고 생각되는가。

만약 그렇다고한다면 그대가 책에대해 현재 품고있는 감정이야 장차 일어날수있는 결과에대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베니트 <1867~1931>

英國의 小說家。스태퍼드州의 辯護士집안서 출생。런던 大學중퇴후 法律事務所의 書記를하면서 文學연구에정진。小說 創作 評論등에 두각을 나타냈다。代表作「老妻이야기」。

誠實이란 人生과文學에 소중한 밑천

마침내는 좋아질것이며、또한 좋아해서 잘됐다고 여길것이기 때문이다。誠實이란 人生에 있어、또한 文學에있어도 철두철미 소중한것임을 알아야 한다。

×××

베니트 (Arnold Bennett)는한때 雜誌출판등에 종사한적도 있었으나 1898년「北部에서온사내」라 이름한 自傳的 소설을 냈다。이소설은 지출과 수입과를 결산한결과 제모자 하나를 살만한 흑자였다고 후에 그는 말했다。

1900년, 부친과 다투고 프랑스에 건너가 약10년간 佛蘭西 自然主義의 手法을 익혀、평범한 현실을 자기의 의견과 비평을 섞지않고 寫實的으로 표현하는 소설을 발표했다。

1903년、파리의 음식점에서 색다른 老女를 만나、그비계덩이육체속에 수10년전의 아름다왔을 자태를 공상、그 歡樂을 벗은 奇異의 그늘속에 悲劇的인생을 상상하면서 모파상의「女子의一生」에 견줄만한 大作의구상으로써 쓴것이「老妻이야기」다。

인용은 베니트의 評論「文學趣味」속의 한귀절。참고로「誠實」에 관해선 故케네디 大統領의 就任연설중 다음귀절이 名句로 알려져있다。「정중하다는 것은 弱함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며、誠實은 항시 立證돼야 할것이다」

읽을만한 새책

日本은 말한다 (존·워로노프著·고유선譯)

종전까지 일본에대해 무조건적인 칭찬으로 일관했던 西歐지식인들의 태도와는달리 일본을 위기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이고있다。외관상 풍요와는 달리 청소년의 비행、마약중독、십대들의 가출과매춘、이혼과 청소년의 자살등 사회의 불안요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음을 지적하고있는데、내용은「결국은 작은 나라」「개성없는 사회」「불평등한 사회」「최악의 교육제도」등 9개의글로돼있다。【우아당刊·2천8백원】

우리 시대의 生 (존·K·갤브레이드著·崔鉉烈譯)

「不確實性의 時代」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사가인 갤브레이드의 회고록。1909년 캐나다태생으로 프린스턴大와 하버드大의 교수로 있다가 戰時물가조정국과 美戰略폭격조사단의 조사위원、駐印度대사등을 역임한 그의 생애는 경제학과 경제정책이 조화된것이어서 사실상 20세기의 資本主義經濟史를 이루고 있다。따라서 이 회고록은「不確實性의 時代」와 다름없는 경제학서적이면서도 회고록특유의 부드러운 문체로 돼있어 일반대중에게 친근감을 주고있다。【多樂園刊·4천5백원】

딸에게 들려주는 人生이야기 (金鍾權著)

고유의 전통이 날로 사라져가는 요즈음 여성들이 잠깐이라도 재래의 미덕을 정리한것。시집가기전에 알아둬야할 가정생활과 혼례에관한 사항、가정주부로서 지켜야할점、관혼상제 치르는법등으로 세분돼있다。【家庭文庫刊·3천원】

死神의 培養者 (中園英助著·車根滋譯)

2차대전중 舊日本軍의 關東軍 제731부대가 자행했던 세균전을 소재로한 장편소설。關東軍이 세균전을 자행했으며 그과정에서 한국인을 이용했다는것은최근 일본의 학자들로 공개한바있는데 이소설은 이를배경으로 日本이 다시 평화속의 전쟁을 준비하고있음을 묘사하고있다。【喚星出版社刊·2천5백원】

金銀寶石 (尹相燦著)

金銀寶石을 천연색사진과함께 종합적으로 설명한 책。지금까지「寶石全書」와「금은보석스토리」등 귀금속에관한 책을 4권이나 낸 尹相燦씨가 저술한 이책은 세계의 秘寶、각종보석과귀금속의 특색、보석의감정과 연마、귀금속의 유통구조등을 설명하고있으나 다이어먼드를 비롯한 각종 반지의 디자인3천여점도 별도로 보여주고있다。【學究社刊·4만8천원】

岐路에선 韓半島의 軍事問題 (李鍾學著)

解氷무드에 뒤이은 새 冷戰體制에서 한국의 안보를 재검토한 책。한반도의 군사문제가 평화보다 전쟁으로 기울어있다는 시각에서 쓴 이 책은「새 국제질서와 한반도문제」「北韓의 對南統一戰略」「북한의 군사교육과 훈련」등으로 돼있다。【형설출판사刊·5천8백원】

支配의社會學 (막스·베버著·琴鍾友·全南錫共譯)

막스·베버의 학문에서 근간을 이루고있는 支配의이론을 정리한책。지배의 구조와 기능、관료제、家長的支配、家産制的支配、봉건제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있다。이책은 또 카리스마적지배와 그변형、정치지배와 敎權지배、國家社會學등을 다루고있다。【한길사刊·3천8백원】

不條理와 人間意識 (李泰東著)

英文학자인 李泰東교수 (西江大) 가 新文學 70년을 평한 평론집。李箱을평한「自意識의 표백과 反語的미」、黄順元을 평한「실존적현실과 미학적顯現」등을 묶은「不條理와 人間意識」에 이어 金東里、李貞桓등을 평한「生命力과 민족정신의 뿌리」등 4장으로 돼있다。【文藝出版社刊·3천8백원】

流星의 賦 <127>

李炳注作 李友範畵

亡兆의 日月 ⑬

이이 (李珥) 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조정의 요직을 동인들이 차지함에 따라 이이에게 심복하고 있는 후배들까지 동인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추종하는 풍이 되었다。

동인들의 이이에게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였지만 감히 임금 앞에서 탄핵을 시도한 적은 없었던 것인데 기묘년 (선조12년) 7월、묘한 사건이 발생했다。

백인걸 (白仁傑) 이 동서 (東西) 의 분쟁을 좌시할 수 없는 기분으로 되어 임금께 상소 (上疏) 했었는데 그때 이이에게 문안 (文案) 의 수정을 청했다。이이는 기꺼이 백인걸의 청을 들어 그 문안을 수정하는 동시、몇마디를 보탰다。

소탈한 백인걸은 허엽 (許曄) 과 이문형 (李文馨) 이 있는 자리에서

『금번 내가 상감께 소를 올린 바 있는데 시세 (時勢) 가 워낙 미묘한지라 뜻하는 바 (所志) 와 말하고자 한바 (所言) 를 일치 시킬수가 없어 무척이나 고심하다가 숙헌 (叔獻=李珥) 에게 부정 (斧正) 을 청해 비로소 회심 (會心) 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었소。과연 숙헌은 유림의 종장 (宗匠) 으로 받들만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소이다』

하고 스스로를 겸손하고 이이를 높이는 말을했다。

그런데 이 말이 전해지자 동인들이 발끈했다。물실호기 (勿失好機) 란 기분으로 되었던 것이다。정언송응형 (正言 宋應洞) 이 이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珥) 는 경연 (經筵) 의 옛 신하로서 젊어서부터 유학자 (儒學者) 란 명망을 가졌음에도 감히 자기의 자취를 감추고、은연히 남의 그늘에서 소 (疏) 를 지었으니 이는 상 (上) 을 속이는 무례 (無禮) 가 아니나』

이에 덩달아 대사헌 이식 (大司憲 李拭) 은

『자신이 말할 수있는 자리、즉언지 (言地) 에 있으면서 이 일에 관해 언명(言明)하지 않았음은 죄(罪)라』

고하여 은근히 홍문관 (弘文館) 을 충동했다。그렇게 해서 이이를 탄핵할 기운을 조장했는데 응당 이 같은 일을 말려야 할 중신 (重臣) 들은 우물쭈물하고만 있었다。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백인걸이 임금께 글을 올렸다。

『이이가 신의 글을 수정한 것은 사실입니다。하나 옛일을 살피건대 송(宋)나라 정이(程頤)는 팽사영(彭思永)을 대신하여 복왕(濮王)의 전례(典禮)에 관한 상소를 지었고、부필(富弼)을 대신하여 영소능(永昭陵)에 관한 상소를 지었다고 합니다。따라서 신은이이의글을 사용하고도 그것을 허물이라고 생각하지않았기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숨기지 않고 말했던 것입니다。그런데 이이가 신을 꾀어서 상소하였다고 하는데、신이 비록 못났다고 할지라도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신의 본의가 아닌 것으로 글을 올렸겠읍니까。신이 늙어 죽을때가 되었는데 감히 거짓을 꾸며 전하를 기망하겠읍니까』

이 글을 올린지 얼마 안되어 백인걸이 죽었다。백인걸이 죽어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조정은 이 문제로 하여 한동안 소연했다。이무렵 정철에 한 말이 있다。

『요즘 화살이 숙헌을 겨누는데까지 이르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리오』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판부 :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ー카드전문

그래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ー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쇄부 :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헌

아 세 아 선 물 센 타

SUMMER GRAND SALE (기간 : 81년7월15일~8월31일까지)

북경우황청심환 40% OFF	인삼녹용환 백봉환 40% OFF	당뇨병 특효약 옥천환 30% OFF	중국 길림산 녹용 3 BRANCHS 40% OFF
카나다 산 웅담 40% OFF	여행용 가방 삼손 나이트 30% OFF	물개, 뱀가죽 백 30% OFF	남녀청바지 $ 16.99
고급펜 크로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와이샤스 30% OFF	피에르·카르뎅 벨트 30% OFF	기타 : 게브랄티 비타민, 전기다리미, 고급화장품등등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 : 530-0522, 3 조 지 섭, 김 영 철

美、核雨傘 확대검토

核무기擴散막게 在來式무기販賣도 늘려

「8개項指針」20일께 公表

【워싱턴8日AP=聯合】미국은 核무기확산방지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핵우산의확대를 검토하고 재래식무기판매를 증대시키려하고 있다고 美행정부관리들이 8일 밝혔다.

국무성이 마련하여 백악관에 제출된 이 새로운 정책은 또 미국이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핵기술의 「확실하고 믿을만한」 공급국이 될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관리들은 말했다.

백악관은 핵확산방지문제가 의제의 하나로 돼있는 오는 20~21일의 오타와西方7개선진국정상회담 이전에 8개항의 핵확산방지지침을 공표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은 이 8개지침이 정확한것이며 오타와정상회담이전에 공표될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채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만 말했다.

행정부관리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8개항목이 이 지침에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①핵무기확산의 중단이 美행정부의 주요목표임을 강력히 재확인한다.

②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독동기를 줄이기 위해 재래식 무기판매및 미국핵우산확대가능성을 이용한다.

③70년의 핵확산금지조약 및 南美를 非核지대로 설정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④국제원자력기구(IAEA)및 핵무기제조를위해 핵연료와 시설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취하는 IAEA의 체제를 강력히 지지한다.

⑤핵무기제조의 위험이 있는 비핵국가에 대한 정밀핵기술및 물질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핵공급국이 협력한다.

⑥정보활동및 정찰위성의 성능향상등을 통해 핵무기가 관련된 다른 나라의 행동을 탐지한다.

⑦핵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국제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하고 확실하며 믿을수 있는 평화목적의 핵공급국가가 될것임을 다짐한다.

⑧미국에서 공급된 핵연료를 핵무기제조의 위험이없는 제3國에서의 재처리에 관해 이전되는것에 관해 사전에 알수있는 정책을 채택한다.

"미사일歐洲배치계획 强行"

美國務省관리、어떤代案도 거부

【워싱턴8日UPI=聯合】미국은 유럽에 대한 신형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 당초의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어떠한 代案도 거부할것이라고 美국무성의 한 고위관리가 8일 밝혔다.

유럽동맹국지도자들과 미사일배치문제를 협의하고 귀국한 이 관리는 최근 유럽측에서 미사일의 지상배치대신 유럽주변해역에 배치를 제의한 일을 유럽지역의 다른곳에배치하는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유럽배치 SS20미사일을 감축시키도록 하기위한 협상을 저해할것이라고 경고했다.

北아일랜드暴動再燃

맥도널 獄中斷食하다 또 死亡

【벨파스트8日AP·UPI=聯合】에이레공화군(IRA)소속 게릴라 조·맥도널이 8일 옥중단식투쟁으로 사망하자 벨파스트·런던데리등 北아일랜드 각지역에서 폭동이 재연됐으며 폭도들은 소이탄·화염병·사제수류탄을 군인과경찰에 투척,커다란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사고로 16세난 한소년이 군인들의 총탄에 맞아 숨졌으며 6·7명의 시위자가 부상했다.

北아일랜드 가톨릭세력의 폭동으로 지난6일간 영국정부와 이곳 가톨릭중재자들간에 활발히 논의돼온 가톨릭세력의 반정부시위종식을 위한 타협안마련은 불가능할것같다.

人種暴動 런던波及

맨체스터서도 暴徒 수백명亂動

◇亂動이휩쓴 맨체스터市街 폭도들에의해 파괴된 英國제2의도시 맨체스터의 상점들. 【맨체스터9日AP=聯合】

【런던8日UPI·合同=聯合】영국동북부 항구도시 리버풀에서 발생한 2차대전이래 최악의 영국인종폭동은 8일 인근산업중심지 맨체스터시와 수도 런던교외까지 확산,수백명의 흑백인폭도들이 상점과 소방차를 불태우는등 약탈과 난동을 부려 수명이 부상하고 50여명이 체포됐다.

리버풀인종폭동이 3일만에 진압된 7일밤 런던의호화상가집결지역인 북부교외 우드그린에서는 새로운 인종폭동이 발생,약5백명의 흑인청년들이 일부백인폭도들과 합세,약40개의 상점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에 돌과 벽돌·화염병등을마구던지는등 난동을 부려 인종폭동이 빈민지역뿐만이 아니라 번화가로도 확대될조짐을 보였다.

또한 런던 서북부 48km에있는 공업중심지 맨체스터에서도 8일새벽 수백명의 흑인폭도들이 떼를지어 상점을 약탈하고 진화작업을위해 출동한 소방차와 건물·주택들에 방화했다.

경찰은 런던과 맨체스터폭동의 주요원인이 人種문제라는 항간의 보도들을 일축하고 난동을부린 청년들이 주민들의 대부분이 흑인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의 주목적은 약탈이라고 강조했다.

올가을 企業國有化 國內銀行부터 斷行

모르와 佛首相연설

【파리8日AFP=聯合】모르와 프랑스수상은 8일 미테랑정부의 11개 국내 대기업국유화일정을 밝히는한편 향후 프랑스의 경제정책이 심각한국내실업문제해결에 역점을 둘것이라고 재차 강조함으로써 미테랑 집권과함께 불어온 프랑스의 좌경화바람을 더욱거세게했다.

모르와수상은 이날 의회에서 행한 2시간여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프랑스가 오는84년까지 사회체제및 생활양식등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테랑행정부가 올가을을 기해 국내11개대기업을 국유화하기위한 2단계조치를 취하기시작한 것이라고 전하고 우선 첫단계로 외국및 외국인투자은행을 제외한 주

베긴 再執權확실

3黨제휴 過半61席 확보

【예루살렘8日路聯=聯合】베긴 이스라엘 수상은 8일 다미黨등 총선에서 13석을 획득한 3개종교정당들로부터 聯政참여약속을 받아냄으로써 1백20석의 의회의석중 과반선인 61석을 확보、새聯政을 구성할수있게 됐다.

이스라엘 정계소식통들은 국가종교당(NRP)、NRP의 분당인 타미당및 아구다트 이스라엘黨등 3개종교정당이 당초에는 베긴수상의 리쿠드黨과의 제휴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이같은입장을 철회함으로써 총선에서 48석을 획득했던 리쿠드黨이 61석의 원내과반선을 확보, 새연정을 수립할 가능성이확실해졌다고 말했다.

美、칠레등南美4國 人權위반國서 제외

【워싱턴9日UPI=聯合】미국은 최근 아르헨티나·칠레·파라과이·우루과이등 남미의 4개 인권침해국가에 대해 취해왔던 국제개발은행의 차관제공반대정책을 철회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와 내셔널·퍼블릭·라디오(NPR)방송이 8일밤 보도했다.

波국영항공사 직원 총파업

【바르샤바9日AP로이터=聯合】폴란드국영 로트항공사 소속 종업원6천여명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총지배인을 정부가 신임공항대표로 승인을거부함에 항의、9일 마침내 4시간동안 파업에 돌입했다.

엔진4개 모두꺼진 美航空機 지상安着

승객3백25명을 태우고 화와이로부터 태평양상공 3만9천피트를 날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소속 보잉747여객기 1대가 지난5일 4개의 엔진이 모두 갑자기 꺼져버려 고도 2만6천피트상공까지 급강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침착한 조종사의 응급처치로 호놀룰루공항에 안착하는데 성공했다고.

메아리

여성 大法官

4년마다 워싱턴에서 거행되는 화려한 대통령 취임식전의 하이라이트는 선서장면이다. 미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성서에 손을 얹어 놓고 신임 「대통령은 자기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것을 약속한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제도의 수호자며 조정자라는 엄숙한 역할을 맡아 미국의 헌법과 양심의해석자로 할중을 떠받치고 있는 「제3의 權府」다.

막강한 권력으로 위세당당한 행정부나 까다로운 의회에 대한 양식의 보루로 모든 미국민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고있다. 이 기구가 창설된것은 1790년이지만 지금처럼 대법원판사 9명의 조직으로 정착된것은 1869년이었다.

1백91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언제나 정치논쟁으로부터 초연했고 그 연속성을 지켜왔다. 합중국 헌법에 위배되는것으로 간주되는 연방정부、州정부、각 지방 어떤 법률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 판례는 당대나 후세에 까지 미국사회의 방향을 결정해주며 때로는 다수의 결정 못잖게 소수의견을 통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법원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취임하나 이 자리에 오르면 의회의 탄핵이나 개인의사에 의한 사임이 아니면 종신으로 일하게 된다. 그래서 보통 20~30년이상 이 자리를 지키는게 관례다. 이렇게 권위와 위력을 과시하는 대법원판사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얼굴이 등장할것이 확실해졌다.

레이건 대통령이 3남매의 어머니인 샌드라·오코너여사를 지명하여 상원에 인준을 요청、워싱턴이 흥분하고 있다. 이번 지명은 66세로 은퇴하는 포터·스튜어트의 후임으로 선택된것이다.

스튜어트대법원판사는 현재 대법원판사로는 최연소로 23년간의 봉직끝에 스스로 이 자리를 내놓았다. 제임즈·레스턴은 그의 사임을 뉴욕타임즈를통해 멋진 「은퇴의 예술」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렇게 격찬했다. 『그는 23년간의 최고 법정기록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이나라의 미래에 낙관적이다. 그의 사임엔 아무런 숨겨진 이유가 없다. 오래 봉직했고 그리고 떠날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은퇴의 예술」을 보여준 전임자의 뒤를 이어받을 오코너 여사가 최초의 여성대법판사로 앞으로 어떤 「법의 정신」을 보여줄지 관심이 끌린다.

뿌리내린 자주외교 펼쳐지는 새아시아

趙治勳名人 바둑立身記

「목숨을 걸고두다」出刊

刻苦의 20년생생히그려

바둑觀·프로棋士세계·祖國愛 담아

◇6살철부지로 渡日한 趙治勳名人은 지난80년12월, 18년만에 귀국하여 부모의 손을잡고 포근한 정에 젖었다。

6세 渡日 기따니門下生 생활 기술

공부 게을리해 첫入段실패…누님질책 분발

이긴 기쁨보다 敗할때 분함 되새겨

【東京=宋本彬특파원】本因坊타이틀을 눈앞에 두고있는 趙治勳명인이 바둑인생 20년을 그린 「목숨을 걸고 두다」란 책을 펴냈다. 名人타이틀을 쟁취, 일본바둑계의 정상에오른 趙명인은 6살때의 渡日에서부터, 철부지시절、입단、자신의 바둑관、프로기사의 세계、결혼과정및 자녀의 교육관、조국관등 바둑과 자신의전부를 담담하게 엮어나갔다.

治勳은 『나는 한국사람이다。일본기사이기전에 한국기사로 활약하고 있다』고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풀어버리기라도 하려는듯 바둑에 대한 정열과 한국인의 긍지를 당당하게 펼치고있다. 『6세때 땅으로 기어가는 전차와 하늘을 나는전차가 있다는 형 趙祥衍의 꾐에 빠져 渡日, 기따니(木谷實)문하생이 됐으나 바둑공부는 소홀히한 장난꾸러기 였다』로 시작、『좋은 바둑을 두고 싶다』로 끝맺은 이책은 재일한국인 모두의 자서전이라고도 할수 있다.

「목숨을 걸고 두다」를 통해 趙治勳의 「모든것」을 간추려본다。

62년봄 일본에 온 다음날 청년기사로 이름을 날리던 林海峰6단(당시)과 나섯점을 놓고 두어 유계승을 했다。

승패는 고사하고 지금생각해도 여섯살로서는 잘둔것으로 여겨진다。6살때 이정도 실력으로 두었다면 지금25세인 나는 바둑을 훨씬 더 잘 두어야 한다。바둑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은 탓이다。기따니문하생으로 있을때 놀기에 바빴다。기따니 선생은 엄하면서도『공부는 하고 싶을때 해야 성과가 있다』고 문하생들을 방임했다。

나는 TV에 매달리기 일쑤였다。하루에 견습문하생끼리 일정대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친구끼리 짜고 두지않은 대국을 둔것처럼 적당히 승부를 조작하여 기록했다。주위의 촉망을 저버리고 10살되던해 입단에 실패했다。『뭐야 천재기사 趙治勳도 별수없구나』라는 주중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하루는 일본에사는 12살위인 누님이 찾아와 나를 공원으로 끌고갔다。『매년 입단에 실패하기만 하니 한국에 돌아가자。일본에 있어봤자 소용없지 않느냐』며 나를붙들고 울었다。

나는 같이 울면서『내년에도 입단하지 못하면 돌아가겠다。한해만 여유를 달라』고 애원했다。

훌륭한 棋士가 되지못하고 한국에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고 자살을 처음 결심했다。죽을 각오로 바둑공부에 열중했다。기력이 나날이 늘었다。

참다운 마음으로 대국해주는 선배가 없어 당대의 기사 吳清源, 후지사와(藤澤秀行)의 바둑을 혼자서 복기했다。노력한 보람이 있어 다음해인 11살에 입단했으며 그해 2단으로 승단했다。

그후 5단까지 매년 승단、16살에 6단이 됐다。

나는 이길때의 기쁨보다 패배했을 때의 분함이 더욱 견딜수가 없다。지면『바보같은 것, 죽어버려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대부분의 기사들은 대국중에 잘못 두었을때『바보구나』『왜 이것을 몰랐을까』『머리가 이상해졌다』는 등의 말을중얼거린다。

나는 옷치장을 하지 않는다。허름한 노타이·차림으로 바둑을두는것이 습관처럼 됐었다。그러나 작년가을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연회석상에서 사까다선생과 바둑을두면서부터 정장을 하게됐다。

가운차림의 사까다선생은 바둑판에 대좌하자『趙君 요즘 자네의 복장에 대해 말이 많네。이젠 신사복을 입을때가 되지않았는가』고 정장할것을 권했다。

나는 정색하고『선생님도 가운차림이신데 무슨 말씀입니까』고 대들었다。

사까다선생은 껄껄 웃으시더니 벌떡 일어나 정장하고 바둑판앞에 다시 앉았다。가슴이 뭉클했다。그때부터 정장으로 바둑판을대하게됐다。

기사들의 평균수입은 생각보다적다。나는 보통 한해 1천만엔(3천2백만원)의 수입이 고작이었다。그러나 작년에 名人이 된뒤 4천만엔을 벌었다。나는 죽을때 돈을 가지고 갈수도 없다는점、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고 해도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돈을 탐내서 바둑을 둘 생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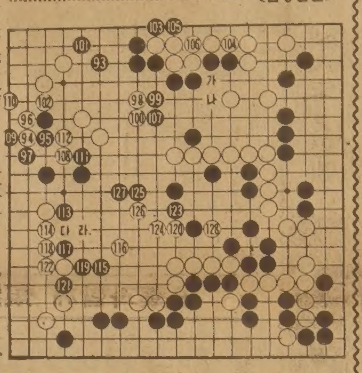
나는 기따니선생의 집에서 靑山학원 2년제 단기대학을 졸업한 6살연상의 일본여성을 만났다。고독한 혼과혼의 결합이었다。

77년11월 결혼하여 지금 남매를 두었다。이아이들은 당연히 한국국적을 가졌다。일본에서 일반회사에 취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아이들이 한국국적을 가짐으로써 겪는 마이너스를 힘으로 플러스가 되도록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강한 인간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나의 조국은 한국이다。얼마전 18년만에 조국땅을 밟고 문화훈장을 받았다。귀국전날 밤 방에서 혼자울었다。

第⑫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2局 第9譜 93~128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曺薰鉉〈1敗〉
黑(挑戰者)徐奉洙〈1勝〉

鄭雲燁사장과 하시베데씨의 국제친선대국이 궁금하여 아래층에 내려가보았더니 어느틈에 복기를 겸한 국후검토를 열띠게 하고있었다。鄭사장의 멋진 역전승으로 끝난 이 바둑은、국가대표 許瀓씨의 강평에 따르면『鄭사장이 포석에서 지고 전투에서 이긴 결과』라하며 하시베데씨도 새삼 한국 아마추어의 실력에 혀를 내두르며『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기뻐했다。

대국실에 다시올라와보니 마침 黑93이 떨어지고 여기까지 상변의 침입부대는 적진속을 헤치며 커다랗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실은 이93이 의문이었다는 국후평이다。93으로는 100자리에 두어야 더욱 분명했다는 얘긴데 그까닭은 차차 알게된다。

名人은 이때 東奔西走로 白94의 급소를 예리하게 찔렀다。그리고 白96까지 준비에서 일단 98、100을 선수한다음 다시 102。黑은 103、105선수를 거쳐107。「동서번쩍」식인 이수순을 프로기사는 외곬길이라고 한다。다만 白104로 「가」에 끊어잡는것은 어떠냐고 물었더니『그러면 黑「나」를 선수로 두게하여 불리해진다』는 해설이었다。

白128 心臟部 一擊

여기서 걱정되는것은 상변黑의 생사문제이다。뭔가 白으로부터 신랄하게 공격하는 수가 있을법한데、名人은 갑자기 白108이하로 좌변을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黑도 상변을 보강할 겨를이 없다。黑113까지 두어놓더니 黑115로 강경한 반격이다。더우기 黑117、119는 이 경우 최대며 최강의 수단。이로써 중앙白일단을 위협한 것이다。白120으로 「다」는 黑「라」면 중앙白이 더욱 허해진다。

자、白은 위기를 맞이했나? 이순간 白128이 黑의 심장부를 정통으로 찔렀다。과연 黑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一凡】

名人戰도전 제4局 내일 浦鐵귀빈실서

제12기 名人戰도전5번기 제4국이 11일상오10시 浦項의 浦項제철귀빈실에서 열린다。名人戰이浦項에서개최되게된것은 浦項제철 棋友會의 초청에 의한것으로 바둑인구의 저변확대와 지방棋界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번 제4국은 2승1패의 曺薰鉉名人이、도전자徐奉洙7단(1승2패)을 눌러 名人位를 방어한 것인지、徐7단이 저력을 발휘、타이스코어를 만들것인지 대국결과가 주목된다。

바둑소식

曺薰鉉名人 選局集 한국기원에서 펴내

한국기원은 우리나라 정상급기사들의 名局만을 모은 대표기사選局集을 펴내기로하고 제1차로 曺薰鉉名人選局集을 내놓았다。

이번에 나온 曺名人의 選局集은 제1부 현해탄을 넘어서、제2부 폭격시대、제3부 全冠王으로 나누어 총25국의 棋譜를 自戰해설과함께 싣고있다。특히 해설속에 대국당시의심경을담담하게표현、현장감을넘치게하고있다。(2백72페이지·값4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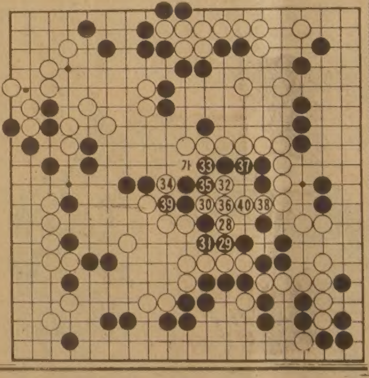
대학바둑 霸王戰 내달 3~6일까지

제1회 전국대학바둑 霸王戰이 오는 8월3일부터 6일까지 한국기원 大會場에서 열린다。

구독신청 533-2361

第⑫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3局 第10譜 128~140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曺薰鉉〈1敗〉
黑(挑戰者)徐奉洙〈1勝〉

이날은 희한한손이 특별관전객으로 와있었다。바로 李樂鮮국회의원。원래 鄭雲燁사장과 京畿동창이며 평소왕래가 잦았는데 바둑을 즐겨하여 어엿한 아마추어2단、마침 한국기원이 아마단윤허증을 鄭사장자택에서 수여하기로 되어있어 겸사겸사 찾아왔다。바둑실력은 잘 모르겠으나 관전태도는 만점。대국자의 신경을 건드릴까봐 기척도없이 멀찌감치 앉아있다가 어느틈엔가 또가만히 아래층에 내려가 趙南哲8단을 비롯한 고단자들의 검토상황을 흥겹게 지켜보았다。

그건그렇고 다시이바둑。서둘러 白28의심장부일격의 결과를 보면 이하40까지 黑이일거에 망망한 끝을 초래했다。28에 소요된 시간은 고작 4분밖에 되지 않는다。그러나 名人은 상변과 좌변에 공격을 퍼붓때부터 간간이 이곳의 공격수단을 再三再四 읽어두었을 것으로 믿어진다。그러니까 시기를 잔뜩기다린 끝에 黑의반격을 맞이하자 마침내 결단을 내렸던것이다。

中央黑의 一大異變

국후에 도전자의 말로는『하변작전은 실패했지만 상변침입을 성공하여 희망이 생겼다』지만 좌우간 이변화에는 정작 도전자보다 관전하는 사람들이 어이없는일을 겪는것만 같았다。

白28에 대하여 黑29는 그러나 30-32-34의 연속강수가 준비돼 있었다。黑35로 39는 白「가」의 짓누르기가 성립되며 黑39로 40은 白39로서 黑이 전멸이다。그리하여 黑39로 끊었지만 白40으로 이어가고 보니 아래쪽黑이 고스란히 떨어졌다。전체형세는 물론 白에게 기울어져 역전이다。【一凡】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2 : 30PM
5 : 00PM～11 : 00PM
토요일 :
5 : 00PM～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전화 : 597－1255～6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KOREA HOUSE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 · 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뎀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Queen / Bay / Temperance St. / Ⓟ / Yonge / King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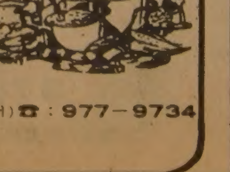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시임)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요일 /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大企業소유 땅 안팔아 國校신축 2年째 지연

예산은확보…着工못해

蔚山 田下·南牧校 2부제수업 계속

【蔚山=聯】재벌그룹이 15만7천여평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蔚山市에서 학교예정지로 지정받은 3천평의 부지를 팔지않아 79년부터 신설키로 계획한 국민학교를 2년째 짓지못하고 있다. 9일 蔚山市교육청에 따르면 지난79년3월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경남蔚山市日山洞452에 16학급규모의 日山국민학교를 착공키로 했으나 학교설립예정지3천평의 소유자인 H그룹이 땅을팔지않아 2년이지난 현재까지 계약조차 하지못하고있다는것。

재벌 "사원주택·私立校 지을계획이다"

이로인해 田下、南牧국민교 등에서는 계속 2부제수업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H그룹측은 이일대에 1만세대분의 종업원사택을 지을계획이며 학교예정지에는 사립학교를 설립할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蔚山市교육청 尹大和교육장은 『예산확보까지 해놓고서도 H그룹이 사립학교신설을 이유로 땅을팔지않아 착공을 하지못하고 있다』면서 『H그룹이 끝내 땅을팔지않으면 경남도에 토지수용령발동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新安寶物 감시强化

【木浦=聯】전남新安郡智島面防築里앞바다 해저문화재 도굴방지를 위해 10일부터 경찰관2명이 상주파견됐다。

문화공보부는 지난76년11월16일 이곳의 문화재도굴을 막기위해 防築里뒷산에 감시초소를세워 新安郡에서 파견한 4명의 직원으로 근무를 시켜왔으나 최근 도굴행위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같이 조치했다。

◇不信… 책가방으로막고 期末시험

8일상오기말고사를 실시중인 光州市北區雲岩洞雲岩국민학교(교장 鞠日鉉)는 각교실에서 열급우와의 사이에 책가방을세워 칸막이를 만들어놓고 시험을 보도록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까지 불신을 가르치고있는 것 같아 보기에도 민망。【光州=聯】

뚫기위해 총예산 5억6천3백만원을 투입、지난77년4월에 착공했는데 최근 공사가 진척되면서 경사65도가량의 산중간부분이 무너져내려 비가 조금만와도 흙더미와 돌이굴러 떨어져 산밑주민들을 불안케하고있는것이다。

주민들의 잇단항의를 받은 市당국은 지난 6일 무너진 산중간 부분에 비닐천막을 덮는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것마저 휩쓸려가 근본적인 안전조치가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松島해수욕장 開場첫날溺死

【浦項=聯】8일하오2시5분께 경북浦項市 松島洞松島해수욕장 남쪽방파제 20m해상에서 수영을하던 金수현군(20·서울江西區登村洞514)이 수영미숙으로 물에빠져 숨졌다。

金군은 松島해수욕장 개장첫날인 이날 수영복도없이 청바지를 입고 수영을 하다 변을 당했다。

金군은 지난6일 친구2명과 함께 浦項에와 이날 혼자 수영을하던중 변을당했다。

女中3명 自殺기도

成績나쁜데 悲觀 1명만 숨져

【光州=聯】성적이 나쁜것을비관해온 여중생이 같은반 친구2명과함께 극약을먹고 동반자살을 꾀했다가 자신은 숨지고 친구들은 살아났다。

7일하오1시10분께 光州市 全南大사대부중 1학년4반교실에서 같은반학생 許美京(14) 高모(14)權모양(14)등3명이 수업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신음중인것을 李모교사가 발견、全南의대 부속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했으나 許양은 숨지고 高·權양은 회복했다。

高양에따르면 이들 3명은 가까운 친구들로서 숨진許양이 평소성적이 나빠 죽고싶다며 비관해온데다가 최근실시한 6월말고사에서도 許양이 61명중 60등을 한것을 비관、高·權양을 빈교실로 데리고가 미리 준비해온 극약을 許양자신이 3분의2가량 먹고 나머지를 高·權양에게 먹게했다는것。

심장병兒童유괴

金泉서 "50代女人 데려가"

【金泉=聯】심장판막증을앓고있는 5살된어린이가 집앞에서 50대여인에게 업혀간뒤 20일째 소식이 없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金泉市 黃金洞164 金聖鎭씨(35)의 2남 泰成군(5)이 지난달 21일 상오9시께 형 海成군(7)이 집에서 1.5m가량떨어진 감천으로 목욕을하러가자 뒤따라가다가 혼자떨어져 행방불명된후 9일현재까지 돌아오지않고있다。

이날 泰成군이 업혀가는것을 목격한 李모양(11)에따르면 헌머리가 약간있는 50세가량의 여인이 길가에서 혼자울고있는 泰成군에게 『집을 찾아주겠다』면서 업은뒤 집과는 반대방향인 金陵郡龜城面방면으로 갔다는것。

택시強盜미수 대학생을검거

歸鄕여비마련하려

8일밤 11시50분께 서울恩平區鷹岩3洞107앞길에서 동신운수 소속 한서택시(운전사 元大潮·51)를 타고가던 D대학 무역학과 2년 李昊雨군(25)이 『여기서내

梨大生 2명에 징역 1年宣告

示威선동혐의

서울형사지법 李永馥판사는 9일 교내에서 불온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 선동한혐의로 구속기소된 禹明淑(21·교육심리학과4년)、黃末姬(20·사회학과3년)피고인등 2명의 梨花女大생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1년을 선고했다。

교통事故 너무잦아 굿판벌여

푸닥거리도중에 또 충돌사고

표주박

○…8일밤10시부터 서울麻浦區孔德1洞116앞삼거리횡단보도옆에서 주민 2백여명이 모인가운데 난데없는 굿판이벌어져 진풍경이었다。(사진)

이날굿은이틀건너한건꼴로 발생하는교통사고를견디다못한주민들이더이상교통사고가 없기를 지신(地神)에게 비는 常山祭와 억울하게 「문전객사」를당한원혼들을위로、천도(薦度)하는路祭를겸해연것。

○…이길에서는지난달13일밤이동네 李英姬씨(51·여)가 과속승용차에치여숨진것을비롯、월평균 7、8건의 사고가 발생、지난 3월이후만도 5명의 주민이 비명횡사했으며 차량끼리의 접촉사고는 부지기수。

그동안 여러차례에걸쳐 당국에 육교、신호등등 안전시설설치를 하소연했으나 반응이 없자 1백여가구의 주민들이 5백~1천원씩의 돈과 쌀을모아 굿판을벌인것이다。

○…『수레귀신、바퀴귀신모두 먹고물러나라、떵더쿵덩더쿵』—굿을 주도한만신 朴善伊씨(67·여)등 무당들이 차도한복판에서 제주를뿌리며 주문을 외는 가운데 돼지머리·시루떡·과일등 제수가 차려진 젯상앞에서 주민들이 합장을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서 서울교통의 한계를 읽을수 있었다。

그러나 굿이 진행되는동안 주민들의 하소연을 실증이나 하듯 굿판 바로옆에서 주민 崔상원씨(29)가 과속승용차에 치여 다치는등 2건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어講座는 未定

【東京9日=宋孝彬특파원】NHK의 다나까(田中武志)방송총국장(理事)은 9일 하오 1시 金鍾鶴공사와 崔佑洵문화원장을 만나 최근 거론된 한국어강좌의 명칭문제에 대해 『아직 명칭자체는물론 내년4월 한국어강좌를개설할것인가의 여부도 결정되지않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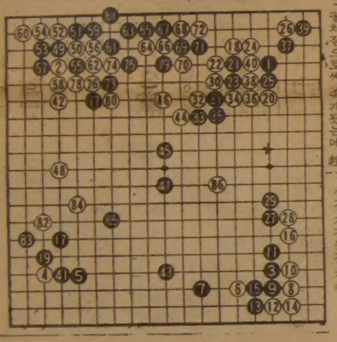
趙名人 한때 非勢

本因坊바둑 제5局

【하꼬네(箱根) 9日=宋孝彬특파원】제36기 本因坊戰 도전7번기 제5국 이틀째 대국이 9일상오9시 가나가와겐(神奈川縣)하꼬네(箱根)의 고라(強羅)온천에서 속개됐다。

이날 대국은 전날 도전자 趙治勳名人이 봉수한 白52가 결처짐으로써 속개됐는데 趙名人은 52로 상변 왼쪽귀에 침투한 다께미야(武宮正樹)本因坊의 黑을 잡으려갔다。 그러나 黑이 오히려 상변 白陣을 유린하고 크게 살아 白은 일시에 非勢에 빠졌다。

趙名人은 국면을 역전시키기위해 白86으로 하변과 중앙에 형성된 黑의大家 깊숙이 침투했는데 이 黑陣을 어떻게 파괴하느냐에 따라 대세가 결정될것 같다。



◇제36기 本因坊戰 도전7번기제5국(1─86) 黑本因坊武宮正樹9단(1승3패) 白名人趙治勳9단(3승1패) 〈제한시간 각9시간 黑5호반공제〉

香山장학금

나의 이력서

〈題字 玄信圭〉

玄信圭 78

教授·졸업생이 回甲기념으로 마련

인생이 덧없음인가、세월이 살같음인가。여지껏해낸것없이 이제뭔가할수있으리라믿어지는이때에늙었음을회한케하는가。無常의 60년이었다。

72년1월24일로 나는 회갑을 맞았다。古來稀로가는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내가 6旬이니 내 안사람도 회갑을맞은 셈이다。내 자신에게도 무엇인지 뚜렷이 짚이지는않으나 못다한 한스러움이 가슴 가득히 밀려오는데 안사람이야 나의 그것의 몇배나 크고 무거운 회한에 젖어있을 것이었다。그러니 회갑이란 조금도 즐거울것이 못되고 훈장처럼 내세울일도 아니었다。

평소에도 내 생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르게 지내오던 터이었으므로 회갑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넘길셈이었다。

그러나 내가 九州대학에 초청교수로 가있는동안 입학파교수들과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회갑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九州대학으로 떠날즈음 그런 기미가 보이길래 극구 만류했으나 沈鍾燮교수가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기념논문집을 발행하고 축하연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왔다。논문집발간은 혹 공부하는 후진들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으리라 믿어져 적극적인 반대는 안했으나 축하연만은 절대 사양하겠노라고 沈교수에게 누차 서신을 내어 철회를 간곡히 부탁했다。차라리 축하연을 할 돈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귀국후 그같은 내뜻이 받아들여졌다。축하연으로 써버릴 예산 75만원을 입학생에게 줄 장학금으로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75만원이란 적은 돈이어서 1백만원으로 불어날때까지 정기예금을 하고 그동안은 내개인적으로 등록금을 부담하기로하여 72년 신학기부터 입학과 입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내호香山을 따서 「향산장학금」이라 이름했다。첫수혜자는 李昌龍군이었다。

졸업생들이 스승의 회갑을 축하하려는 마음을 모으고 동료교수들의 우정이 담겼으므로 흐뭇한 고마움이 없지않았으나 또 한편으로는 나도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끄루를 남길수 있어서 조금은 自足이되었다。

굳이 장학금을 고집한이유는 내게 대학진학의 길을 열어준 鄭熙燮군의 뜻을 살려 이어받기 위해서였다。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鄭군의遺志를 꼭 전해주고가능하면 그뜻을 되살리도록 일러주곤한다。그러니 이 장학금은 나의 것이아니라 鄭군의 신념의 흔적으로 남아있는것이나 다름없다。

부피가 없어 빈약한 장학금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5백만원으로 불었다。회갑 5년후 농대 정년퇴임때 내가 가지고 있던 서적과 문헌등을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학교로부터 사례금조로 받은 2백50만원을 보태고 또 정년퇴임때 기념품을 만들고 남은 돈도 더해서 5백만원을 채웠다。

이제는 이자만으로도 입학과와 임산가공과 입학생 1명씩에게 등록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筆者의 회갑일이 되는 72년1월24일 동료교수와 졸업생들이 마련한 축하연을취소시키고 집안에서 기념예배로 대신했다。 축하연중지로 아껴진돈은 장학금의 기초가되었다。

72년부터 林學科新入生1명에 지급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는일은결코 즐거움은 못된다。더우기 6旬에이르면 갑자기 늙어버려 종말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알게된다。그때부터 초조해지게 마련이다。

나는 이 초조를 떨쳐버리기라도 하듯、아직 늙지않았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회갑이 지난 며칠후 훌쩍 인도로 떠났다。마침 뉴델리에서 SABRAO총회가 2월에 열렸고 회장인 팔박사의 추천으로 포드재단에서 왕복여비를 얻을수 있었다。인도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나라여서 호기심이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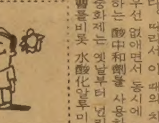
거리에 즐비한 빈궁은 듣던대로 우리보다 못한 생활형편을 말해주고 있었다。그러나 막상 대회가 열린 국립농업연구소의 규모나 시설 또 연구진용은 일반 인도와는 달리 세계적인 수준에 와있었다。지소까지 합쳐 이연구소의 직원이 1만5천여명、그중에 석사、박사가 1천명에 이르고있었으며 청년학도들의 발표논문 수준도 훌륭했다。여러면에서 우리나라 시험연구소의 수준을 앞서가고 있음을 보았다。무엇이 그들을 양극화시키고 있었을까。그 해답은 이내 풀렸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慢性胃炎의 治療

投藥과함께 規則的인 攝生필요

표층성과 비후성위염에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위산의 분비는 오히려 늘어난다。따라서 이 때의 치료는 염증을 우선 없애면서 동시에 위산을 제거하는 酸中和劑를 사용하게된다。이 중화제는 옛날부터 널리쓰이던 重曹를비롯 水酸化알루미늄등 여러종류의약이 있다。그러나 이들 약제의 선택은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야한다。



이밖에도 自律神經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위액의 분비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위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율신경차단제가 쓰이고 심한 구역질에 대해서는 클로르프로마진이나 트리민등이 사용된다。

또한 위산과다증이나 십이지장궤양등은 정신적과로와 수면부족등이 증세를 악화시킬수 있으므로 규칙적이면서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만성위염치료에 크게 도움이 된다。

식이요법은 위에 자극을 주지않고 위액분비를 억제하여 위를 지나치게 활동시키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목적이있다。따라서 다음과같은점에 주의해야한다。

①산성인 음식물은 가급적 피한다 ②식품에서는 햄、고기、수프、군고기、날채소、죽순등을 피하고 ③매운것은 삼가야하며 설탕이 많이든 과자류는 먹지않는게 좋겠다 ④음료로는 탄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알콜、코피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그리고 담배등은 모두가 자극제가 되고 흥분제가 되므로 좋지않다 ⑤각종 향신료 즉、후추、고추、겨자、카레、육계、파프리카와 콘소메수프나 같은 향료따위는 위벽의 혈관을 확장하고 위의 활동을 촉진하므로 좋지않다。특히 공복시에는 자극이 커진다 ⑥너무 뜨거운것이나 지나치게 찬것、또 신맛、단맛이 강한것은 모두 좋지 않다 ⑦짠맛이 강한것은 절대로 좋지않다。신체의 체온정도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더운음식이 자극이 적어서 좋다。

潰瘍이 계속해서 남아있거나 潜出血이 있을때에는 연한 음식이라해서 방심하고 먹어서는 안된다。병의 정도에 맞춰 과즙이나 수프와 같은 수분을 비롯해서 점진적으로 무른고형식으로 옮겨가는것이 이상적인 식이요법이라 하겠다。

※고침=158회(8일字)내용중 상단 17째줄 점막벽이 「없어지는」은 「엷어지는」의 잘못이었기 바로잡습니다。

朴炅南 〈醫博·漢陽大 의대내과교수〉

모눈종이 위의 生

趙善作 作
禹慶熙 畫
<142>

그림자놀이 53

일곱시가 조금 넘어서 나는 다방으로 갔다。언제 왔는지 노영지는 좀 지리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눈인사를 주고 받은 다음 나는 노영지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미스노가 일하러 갈 시간인 것 같애。안 그래?』

『괜찮아요。하루쯤 쉬죠 뭐』

조금 웃으며 노영지가 대답했다。

레지에게 코피를 한 잔씩 시킨 다음 내가 다시 말했다。

『무슨 권리로 내가 영지를 오라가라하는지 참 우습다、그치?』

오전에 노영지와 헤어진 다음 나는 줄곧 노영지에 대한 내 자신의 교활함에 대해 씁쓸한 비애를 맛보고 있었다。자신의 피로움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운 그녀에게 내것까지 책임을 전가하려는 수작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여간 파렴치한 짓이 아니었다。

노영지는 또 조금웃었다。

『언니가 오라가라한건 아니잖아요?』

『그래두、생각해 보면 영지가 나한테 뭔가 털어 놓아야 할 이유란 아무것도 없거든』

그때 노영지는 조금 긴장한 표정을 보이며 『사실은…』하고 입을 열었다。그러나 긴장한 것은 노영지보다 도리어 나였다。나는 그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두려워하며 그녀를 주목했다。

내 시선을 피하며 노영지가 말했다。

『조금 아까 한민일씨와 만났었어요』

그것은 나에게 경악의 느낌을 가져다 주었다。그러나 나는 이성을 잃지 않고 말했다。

『만난 것만으로 나와 했던 약속을 깬것은 아니잖아?』

노영지는 피로운 표정을 짓고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말았다。조마조마한 느낌으로 나는 노영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레지가 코피를 가져다 주었다。그러나 노영지도 나도 코피 마시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잠시후에 노영지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언니。약속을 어길 생각은 없었어요。그런데…』

『그런데?』

『아까 언니랑 헤어져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과 한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제감정도 정리할 겸 마지막으로。그분이 자주 드나드는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네 시경에 나올 거라고 해서 시간까지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나는 얼핏 미려빌딩에 있는 예의 그 출판사를 떠올렸다。그 출판사는 노영지에게 그와의 연락처 구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노영지가 계속해서말했다。

『하숙을 옮긴 뒤、신촌에서 하숙을 하다가 제기동으로 옮긴 거거든요。제쪽에서 연락을 끊고 있으니까 계속 찾았던 모양이에요。먼저 하숙으로도 몇번 전화가 왔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미진한 것들、감정의 찌꺼기 같은 것을 정리도 할겸…』

『그래、만나서 내 얘길한거야?』

『아뇨。언니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않았어요。유성 온천에 갔을 때 우릴 본 사람이 있다고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여자라고 했어?』

『아뇨。안 했어요。그랬는데도 그는 여자지、하고 추궁하며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한반응을?』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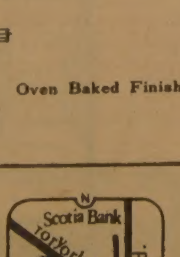
종합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R.R.S.P
•빌딩·상점
✽10년이상의 경험
✽모든 보험에 관한 문의 환영
최저의 프레미엄 보장
Stan Herman
(B)425—4994
(R)293—1708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GM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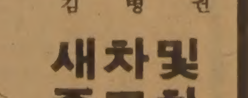
NORTH YORK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薛旻敬 強스트로크 驅使 細技의 韓恩淑에 逆轉勝

페더레이션컵 테니스派遣선수 選拔戰

동률 趙恩玉과 2위 다툼 金壽玉은 6연승 1위 확정

9일 장충코트에서열린 제19회 페더레이션컵 세계여자테니스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선수 선발전 최종일 경기에서, 薛旻敬(농협)은 韓恩淑(조흥은)을 강한 그라운드 스트로크로밀어붙여 3-6, 6-2, 6-0으로 역전승, 동률 4승2패를 기록하고있는 趙恩玉(국민은)과 최종전에서 2위를 다투게되었다.

金壽玉(농협)은 李廷順(경상대)과의 마지막 경기를남기고있으나 전날 韓恩淑과趙恩玉을 연파, 6승을 올림으로써 1위로 확정됐다.

기대했던 薛旻敬-韓恩淑의 접전은 제2세트에서 불붙기시작한 薛旻敬의 강력한 그라운드스트로크에 韓恩淑의 세기가 밀리면서 薛旻敬의 일방독주로 끝났다. 첫세트를 3-6으로 빼앗기고 제2세트에서 1-2로 뒤지고있던 薛旻敬은 러브·게임으로 2-2의 타이를 만들며 내리 5게임을 따내 6-2로 세트를 역전시켰다. 마지막 3세트서는 좌우베이스라인의 구석을 찌르는 강한 스트로크로 체력이 달리는 韓恩淑을 6-0으로 압도했다.

金男淑(농협)은 이날 高志賢(경상대)을 6-3, 6-1로 완파, 3승3패를 기록했다.

◇최종일전적

薛旻敬 2 (3-6 6-2 6-0) 1 韓恩淑 (4승2패)(4승3패)

金男淑 2 (6-3 6-1) 0 高志賢 (3승3패)(1승6패)

趙恩玉 기권 申順浩 (4승2패)(7패)

◇제3일전적

金壽玉 2 (6-0 6-4) 0 趙恩玉

金男淑 2 (6-0 7-5) 0 韓恩淑

高志賢 기권 申順浩

◇體力이 달려 안정된 백핸드 스트로크로 페더레이션컵 선발전에서 선풍을 일으킨 韓恩淑. 그러나 4연승후 金壽玉, 金男淑, 薛旻敬에게 연패, 체력의 열세를 드러냈다.

國際심판 7명선정 FIFA에 통보

대한축구협회는 8일 하오 심판위원회를 열고 81년도국제심판에 羅允植씨(新)등 7명을 뽑았다.

협회는 곧 FIFA(국제축구연맹)에 이를 명단을보고, 정식으로 자격을 부여키로할 계획인데 이들은지난5일부터 4일간 처음으로체력 실기 필기 외모등의 공개전형을 거쳐 선정됐는데지금까지 국제심판으로있던 朴慶貫씨등 6명이 다시뽑히고 은퇴한 孟光燮씨의 자리에羅允植씨가 들어 갔다.

▲국제심판 명단=李倜寧 朴慶貫 沈建澤 金洙德 白泰基 崔永植 羅允植(이상7명)

優秀中高배구 개막

南星、群山女商 완파

金和美의 공격빛나 3-0

【釜山=聯】 9일 釜山구덕체육관에서 속행된 제16회전국남녀 우수중·고배구대회겸 제8회 회장기쟁탈 전국중·고 대회이틀째경기에서 지난해 이대회 우승팀인 南星女高는 群山女商을 3-0으로완파, 서전을 장식했다.

釜山南星은 이날 여자농구 국가대표 金和順의동생인 金和美(1m75)가 다양한 공격을 퍼붓는등 공수양면에걸친 맹활약으로 群山女商을 1시간13분만에 제압했다.

群山女商은 세터 金[illegible]과 주공 朴英民의 콤비플레이로 추격을 노렸으나 南星 金和美외에도 金鍾順 세터 金美[illegible] 속수무책, 완패했다.

한편 여중부 B조에선 釜山德明女中과 서울一信女中이 각각 승리, 나란히 2승으로 선두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있다.

◇제2일전적

▲여고A조

남부성산 3 (15-9 15-6 15-8) 0 군산여상 (1승)(1패)

▲남중부

동부아산 2 (15-4 15-9) 0 남이성리 (1승)(1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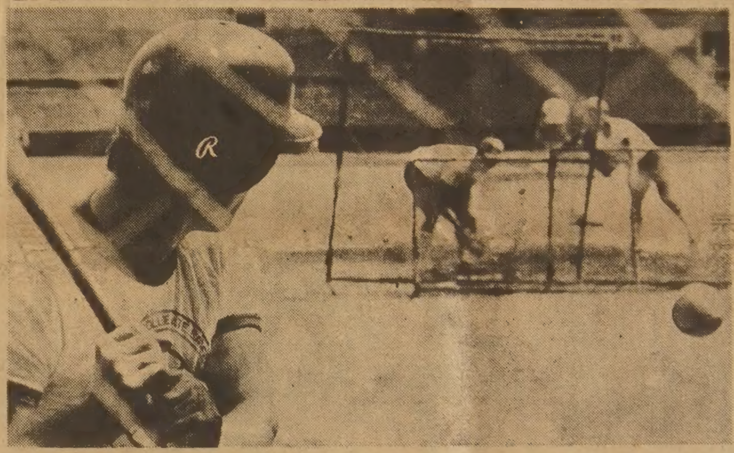
▲여중A조

부산은하 2 (15-12 16-14) 0 부수정산 (1승1패)(2패)

▲동B조

서울일신 2 (15-4 15-3) 0 대구경북 (2승)(2패)

부산덕명 2 (15-7 15-7) 0 남부성산 (2승)(2패)



◇打擊연습 제2회 韓·美대학야구 선수권대회 개막에 앞서 美國 선발팀은 9일 서울운동장에서 배팅연습을 가졌다.

韓美 대학野球선수권전 오늘 開幕

9일간 7戰4先勝制로

제2회 韓·美대학야구선수권대회가 오늘(10일) 하오6시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된다. 韓·美양국야구인들의 친선과 기술교류를위해 마련된 이대회는 18일까지 7전4선승제로 열린다.

美國대학선발팀은 8일 내한, 신라호텔에 여장을 풀고 9일하오 서울운동장에서 러닝과 노크, 배팅외 가벼운 연습을 가졌다.

반도 유스호스텔서 합숙 훈련을해온 韓國대학선발도 9일 徽文高운동장에서 승리를다짐하는 최종연습을 가졌다.

◇한국대학선발

▲투수=金相基·吳泳日(인하) 趙鍍衔(원광) 金泰根(동국) 尹學吉(연세) 楊相汶(고려) 李相君(한양) ▲포수=李萬洙(한양) 韓文挺(동아) ▲내야수=朴鍾勳(고려) 金東再(연세) 朴榮泰(동아) 吳大錫(한양) ▲외야수=金一權(한양) 趙成玉(동아) 金亦均(연세) 金城漢(동국) 金貞洙(고려)

◇미국대학선발

▲투수=카터, 클레멘츠, 존슨, 맥, 매크, 보스버그, 월코트 ▲포수=골드손, 러셀, 스텐하우스 ▲내야수=오웬, 파치오렉, 슈미트, 시몬스, 스텀스, 존스 ▲외야수=로터, 맥도웰, 투스컨

서울市 학생陸上 오늘부터 3日間

제2회 회장기쟁탈 초·중·고대항 육상겸 전국체전 서울시대표 선발전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운동장서 5백5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대회서는 지난달 여자 높이뛰기서 1m77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金希宣(서울체고)의 기록경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서울市 氷球協발족

서울市아이스하키협회는 8일 초대회장에 李숙烘씨(덕수흥업회장)를 선임하는등 15명의 집행부를 구성, 정식 출범했다.

◇집행부명단

▲회장=李숙烘(덕수흥업 회장) ▲부회장=朴甲哲 金佑圭 ▲전무겸심판이사=林炳哲 ▲총무=白石煥 ▲재무=盧贊燁 ▲경기=申尙協 ▲섭외=朴甲根 ▲이사=湯世賢 黃昌熙 金炳興 金在一 崔耕 ▲감사=田百鎬 郭日變

아랍卓球 여름마다 한국서 轉訓

韓國人코치引率 한달간 實業팀과 鍊習게임

카다르등 2팀 到着、2팀도 곧 來韓

聖地 메카를 찾는 아랍인의 순례행렬처럼 탁구강국 한국을찾는 아랍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있다. 해마다 하한기(夏閑期)를 이용, 고도의 탁구기술을 가진 한국을 방문, 전지훈련을 실시해온 아랍제국의 탁구팀들이 금년에도 예외없이 한국인 코치들의 인솔로 서울을 찾고있다.

작년 中東에진출한 朱漢巡씨가 지도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스포츠·클럽선수단 11명이 지난3일 처음방한, 器興 東亞建設체육관에서 전지훈련에 들어갔으며, 金鎭業씨와 李昭光씨가 이끄는 카타르대표팀15명도 6일 도착, 세라톤·워커힐에 여장을 풀고 1개월간의 전지훈련에 들어갔다.

25일께에는 리비아로 진출한 金昌濟씨가 국가대표팀을 데리고 두번째로 서울을 1개월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金明鎬씨가 지도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알·아인·클럽은 8월중순께 내한, 약1개월반동안 국내실업팀들과 교류하며 한국탁구기술을 배울 계획이다.

아랍제국은 한국탁구의 높은 수준을 인정, 해마다 전지훈련을 위해 한국에 탁구팀을 파견하는 한편 많은 한국인지도자의 파견을 요청해오고있다. 현재 中東지방에는 아랍·에미리트 3명, 바레인1명등 모두 8명의 한국인 지도자가 활약하고 있으며 8월중에 李相國, 梁鉉哲, 金忠吉씨가 아랍·에미리트, 鄭光鎬씨가 쿠웨이트로 진출하게 된다.

한국、西獨대파 3勝

존즈컵 女子농구 朴贊淑·金和順 활약

한국여자농구대표팀은 8일 대만 中華체육관서 벌어진 제5회 존즈컵쟁탈국제농구대회 결승리그 이틀째경기서 西獨을 74-56으로누르고 3연승을 기록, 美國과 함께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초반 西獨의 장신에 눌려 고전하다가 9분께 18-18로 두번째동점을 이룬뒤 朴贊淑의 슛으로 전세를 뒤집고 속공을 펴 전반을 36-28로 앞섰다. 후반서도 한국은 金和順 朴贊淑의 슛 호조와 西獨의 잇단 실수에 편승, 74-56으로 낙승했다.

한편 美國은 대만 白팀을 79-70으로 따돌리고 3승을 기록했고, 대만 靑팀은 74-48로 캐나다를 대파, 2승을 마크했다.

◇결승리그 제2일

한 국 74 (36-28 38-28) 56 서 독 (3승)(3패)

미 국 79 (45-37 34-33) 70 대만백팀 (3승)(2패)

대만청팀 74 (38-18 36-30) 48 캐나다 (2승)(3패)

"한국선수 世界랭킹 疑問"

美복싱誌 選定기준에 異見

세계적인 복싱월간잡지인 美國의 일러스트리트誌는 한국프로복싱 선수들이 WBA(세계복싱협회)와 WBC(세계복싱평의회)에 대거 진출해있음을 비난, 주목을 끌고있다.

이잡지는 지난 4월호에서 「외관상 부적격의 많은 한국선수가 어떻게 세계랭킹에 들어있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는데 당시 한국선수가 WBA에 10명, WBC에 16명등 26명이 세계랭킹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또 이잡지는 이들대다수가 KBC와 OPBF가 인정하고있는 각체급의타이틀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KBC자체랭킹 상위권에도 들지못한 선수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지난2월 WBC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日本의 오오쿠마·쇼오지(大熊正二)와의 타이틀매치에서 2대1로 판정패한 朴贊希가 랭킹에서 제외됐다는것은 미스터리라고 표현하면서 전세계챔피언이었던 金相賢 金泰式 朴贊希 金性俊을 제외하고 WBA WBC에 랭크된 모든 한국선수는 세계랭커와 싸워본적이없는 선수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복싱위원회(KBC)는 『KBC와 OPBF의 랭킹조정에관한 규칙을 모르는 무지한자가 WBA·WBC를 공격하기위한 자료로 언급한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필요할경우 랭킹 조정방법등을 통보해줄수도 있다』고 일러스트리트誌를 공박했다.

美洲卓球여행 ③

—全美오픈大會의 意味

그림같은大會場 프린스턴大 캠퍼스

플로어半은 樹脂로 半은나무로 깔아

選手숙소인 寄宿舍는 너무 떨어진게 흠

선수단은 15일 LA를떠나 美대륙을 북동으로 가로질러 5시간만에 뉴욕에 도착했다.

뉴욕에서 제51회全美오픈 탁구선수권대회 개최장소인 뉴저지주 프린스턴으로 가는데는 리무진버스로 2시간가량 걸렸다. 버스는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경계인 허드슨강밑의 지하터널을 지났다.

대학촌 프린스턴의 인상은 영화에서나 볼듯한 아름다운 전원주택가의 모습이었다. 하얀 창문과 빨간 지붕모서리가 잘가꿔진 나무숲 속에서 숨바꼭질하고 있었다. 군데군데에 펼쳐진 서울운동장보다 더넓은 잔디밭에는 토끼, 새, 다람쥐들이 아무두려움없이 뛰어 놀고 있었다.

대회장소인 프린스턴대학의 재드윈체육관은 여러개의 조개껍질을겹쳐 세운듯한 모양의 대단히 큰 건물이었다. 플로어의 반쪽은 합성수지로, 다른반쪽은 나무로 되어 있었다. 합성수지로된 플로어에는 많은 육상트랙이 그려져있고 선수용, 일반·학생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나무로 된 플로어에는 농구, 핸드볼등 각종 구기종목의정규 규격코트가 그려져 있었다.

체육관뒤로는 거부 카네기가 명문 프린스턴대학을 위해 기증했다는 거대한인공호수가 맑은수면에 드넓은 캠퍼스의일부를담고 있었다. 가끔 대학조정경기가 열려 조용하던 대학촌을 들뜨게 한다고한다.

체육관앞으로는 U자형 스탠드를 가진 美式축구장, 보조경기장이 자리잡았다. 우거진 숲속 곳곳에 각종 연구실, 도서관, 박물관, 강의실, 기숙사, 상가가 펼쳐져 나소 스트리트, 피츠 랜들프 로드, 프로스펙트 애비뉴등의 크고 작은 길들로 연결되어 있었다.

대회본부는 재드윈 체육관의 개폐식 스탠드의 일부를 접어올리고 플로어에 80대의 탁구대를 설치했다. 참가신청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에서 대회임원 한사람이 국가대항전외에 클럽대항전에 출전치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고서야 그많은 탁구대의 용도를 알수 있었다.

51회라는 대회의 전통에 비해 美國사람들의 대회준비나 운영은 허술했다. 대회본부의 모든 발표나 공지사항전달은 오직 복도한구석에 붙은 조그마한 벽보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개막전날인 16일 하오6시에 대표자회의가 열린다고했으나 겨우 3~4개국 감독들과 주최측인 美國탁구협회의 會試프리장, 케네디국제담당부회장, 쉬프·엠파이어 패리씨등 6~7명이 복도에 모여서 잡담하듯 대회진행설명을 늘어놓았다. 회의참석자들에게 배부된 자료는 겨우 개인전 출전시간표 한장뿐.

우리선수단은 1인당 15달러로 배당된 프린스턴대학기숙사의 키를 받아들고 정해진번호의 기숙사를 찾아나섰다. 경기장에서 버스로 15분이나 떨어진 곳이었다. 우선 경기장까지의 차편이 문제였고 두번째는 화장실, 세면장, 샤워실이 모두 공용으로 지하실한곳에 마련돼있어 여자선수들에게 불편도 문제였다.

한편으로는 침구를 받아나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숙소를 찾아헤매다가 개장 몇개월째에 안됐다는 스캔디컨·프린스턴 호텔을 찾아봤다. 태양력온수, 발전시설을 갖춘 대단히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단며칠간이라도 맛볼수 있었던 명문대학의 기숙사 생활의 기회를 놓친것이 아깝기도 했다. 【方錫楨기자】

張吉山 (1608)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68)

이경순의 피로물은 잔혹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니, 만취하여 들어와 어둠속에서 묘옥의 가슴을 그러머니 어루만져 보고는 하였다. 손끝에 연비된 묵흔(墨痕)이 만져질 없건마는 글자의 모양이 전신으로 번진듯한 느낌이었다. 묘옥은 그런때 분명히 깨어나 있었고 호흡이 가녀리게 바뀌거나 규칙적인 숨소리가 멎고는 하던 것이다. 어둠속에서 묘옥은 손을 잡아 가만히 쥐기도 하였다. 묘옥은 일년중 두번을 꼭 잊지않고 해내는 제사가 있었다. 여주양화 나루에서 군졸의 칼에 맞아 죽은 이경순의 아내 제사와 해주 주내방 사거리서 참수되어 바다에 버려진 것으로 알고있던 화적 장길산의 제사였던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음을 알게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으니, 구월산 자비령 녹림당들의 활빈행이 해서 각처를 휩쓸적에 이미 장길산의 이름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외우고 흉내내어 놀음하게 되었던 터였다. 이경순이나 묘옥은 한번도 길산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을 꺼내지 않았다. 묘옥은 길산이 살아있을뿐만 아니라 장터에 와자하게 그의 활동이 알려진 다음에도 그 두번의 제사를 잊지않고 해내는 눈치였다. 경순이 묘옥의 괴이한 짓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여, 지난번에 떡은 음식은 날짜로 알겠거니와 오늘 이것은 웬 음식인고, 당신 생일이 언제던가, 하였더니 묘옥은 말끝을 흐리지 않고 고개를 들어 분명하게 말하였다. 도창님과 저를 위해서지요. 연전에 은혜를 입었으나 그이가 이제는 영영 속어 이를 잊지 않으려고 제사를 지내구 있읍니다.

『장연 강선흥이우』

우람한 체구에 걸맞는 소리로 선흥이가 인사하였고 이경순은 다시 황급하게 마주 인사를 하였다. 길산은 경순을 무심한듯이 보고 있었으나 워낙 눈썰미가 빠른지라 상대가 자기를 건너다보는 시선이며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처음에 느끼고 있었다. 어디서 보았던가. 그는 마치 경순에게 뒤가 밟혔던것이 있고, 장바닥에서 마주친 빚장이가 이쪽의 행동거지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과같은 기색이던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관을 피하여 세상을 등지고 사는 자라며 니 상대를 살피는게 버릇이 된 모양이군, 길산은 그렇게만 여겼다.

『여기들 계시구먼』

하는 소리가 들리며 여환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제 석중이 하나 더 늘었으니, 나는 술술 계를 작파하고 곡차를 들어도 되겠구먼』

옥여가 술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이런자리에서 맨숭맨숭하니 그들을 앉혀 놓기가 미안하였는지 그렇게 농을던졌다. 김기와 길산과 선흥이는 무뚝뚝하게 그 낯선 중을 돌아보았고 우대용이 길산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허 잊었군. 왜 감영서 한 선이 도움으로 빠져 나올제 공수원에서 만났잖아. 생각이 안나?』

『글쎄… 공수원이란』

『소승 문안이오. 여환이라 합니다』

길산과 김기와 선흥이도 차례로 인사를나누었고 여환은 조용히 말하였다.

『인연이란 전생에엮은줄이어서 사람의마음대로되는게 아니지요. 이렇듯 장두령과 몇 해만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니 더욱 인연의 오묘함을 알게됩니다』

우편파업을 극복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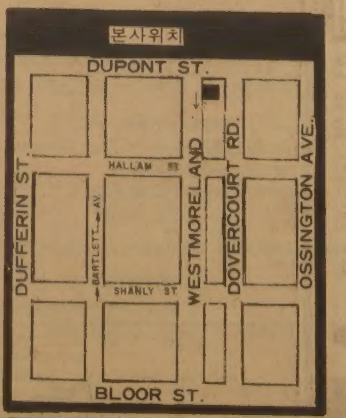
■ 본사는 파업중에라도 신문을 매일 발행 주3일 식품점등에 배달하여 독자들께서 무료 픽업하실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 파업이 끝남과 동시 그간 못보내드렸던 신문을 전부 우송합니다

★ 정상근무를 계속하는 본사는 특히 파업기간중 수금이 안돼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읍니다. 광고료및 구독료등을 인근 식품점에 맡겨 두시거나 본사 근처를 지나시는 길에 잠간 들려서 내주시면 크게 감사하겠읍니다.

어려운 때인 만큼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신문 계속 발행
광고 계속 접수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무료픽업처

고려식품
동양식품
반도식품
한국식품(본점)
(동부)
〃 (서부)
서울식품
삼복식품
한국관
한국일보사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우리 동양식품은 교민들의 성원속에 날로 번창하고 있읍니다.
다른 식품점에서는 갖지못한 신선한 젓갈류, 각종당면류등 여러 품목이 있아오니 1차 왕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함 태 민 올림

248-5131
1662 JANE ST. (로렌스)

D. Y. FOODS

大學生의 여름…「보람의 50일」을위한 助言과계획

학생들에게 있어 여름방학은사회로가는시간이자 이상의 숲으로가는 계절이다. 금주부터 고박 50일간의 夏休. 無爲하게 지내기에는 지리한 기간이지만 유익하고 뜻있는시간을 갖기에는 오히려 짧은 기간이다. 지혜있는 대학생들은 저마다 보람되고 값있는방학계획을 짜고 있을 것이다.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지도교수의助言과 몇대학생들의 계획을 들어본다.

自己成長의 금싸라기機會

「뜨거운 여름」이 「豊饒의 가을」낳는다

金仁子교수 <西江大·敎育心理學>

이번 여름에는 모처럼, 우리 大學生들이 지나간 한학기 勞苦에 對한 代價로서 放學을 「놀아야 할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때문에 色다르고 유익한 경험을 많이 얻도록 이 여름을 설계해야겠다. 오랜만에 뜨거운 열기로 여름을 엮어 풍요로운 가을을 타작하고 싶다.

사실 우리의 교육은 방학의 意味를 너무 소홀히 해왔던 것 같다. 放學을, 學習하기를 쉬는 것으로 아는 이도 있는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放學中에 새롭게 自己指向的으로 學習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획된 放學을 보냄으로써 보다큰 自己成長의 계기가 되는 것이나, 色다른 자극경험은 기존의 學習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또 다른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二次的인 효과가 있다.

個人의 사정에따라, 즉 時間, 경제, 自己능력 그리고 주어진 프로그램을 검토해야만 다양한 여름이 될 것이다. 첫번째로는 남을 돕고 싶어한다. 봉사활동을 생각한 이는 물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만족한경험을 할수있지만 自身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하며, 또 가능하면 자신의 정신적인 경험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일에 意味를 부여한다든가 가르치며 배우게 되는 「거리」를 잘찾아야한다. 좀 손해를 보는듯 하더라도, 一生을 通해 가족이나 社會에 對한 一次的인 責任을 지지않아도 되는 봉사할 수 있는 「금싸라기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말고 마음껏 봉사해 보는 것이다. 세상에는 「1퍼센트의 得도 1퍼센트의 失도 없는 것같다. 아무리 「失」인것 같아도, 반드시 그 뒤에는 得이 있는 것을 學生들은 기억해야 한다.

다음에 人格的인 수양을 하겠다고, 自然속에서 深奧한 宗敎的인 가르침이나 철학을 되새겨보는 것도 매우 뜻있는 일이다. 자신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알해보는것이다. 「나무」「새」, 그리고 산새들과 풀꽃들을 새롭게 음미하고, 고적답사를 하여 先賢들과 만나서 담소하며 천천히 잠시나마 내다보는것도 의미있는 경험이 될것이다.

새로운 취미개발이나 기술 습득도 계획할수 있다. 취미나 기술, 언어 능력을 높이는것은 즉각적인 성취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결과를 볼수 있고 성취욕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적이고 짜릿한 즐거움을 심리학에서는 절정경험 (Peak experience) 이라 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부닥쳐 피로울때 상상속에서 과거의 그 절정경험을 되새겨 생생하게 경험하면 할수록 심리치료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정신력으로 향상시킬수도있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것뿐 아니라 그 만족감때문에 다른 學習을 의욕적으로 할수 있도록 태도를 바꾸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음에 나는 우리 젊은이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다. 이제 다행히 外國여행의 문호도 활짝 개방되었다. 이제 우리의 수학여행도 日本 고등학교학생들이 羽田이나 成田 空港을 5分마다 전세비행기로 떠나듯이 무리를 해서라도 여행을 가도록 밀어주어야겠다는 個人的인 소감이다.

우리도 적극돕고 국비를 대여해서라도 여행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겠다.

여행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만나본 偉人들에게서 여러가지 共通點을 보았는데 그 하나가, 그들은 많은 여행을 했다는 것이다. 여행은 우선 不常的인 긴장에서 해방되는 쾌감을 경험케 해준다. 또 여행에서는 내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내것을 새롭게 개선하고자하는 용기와 통찰력이 생기기도 한다. 일찍기 케네디家에서는, 어려서부터 自己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歷史的인 事件이나, 인자취를 설명해주어서 地域社會에 對한 關心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으로부터 향토애와 人類愛로 발전시키는 기초를 삼았다한다.

여행을 할때는 동반자가있는 것이 좋다. 또 무엇인가 가는곳에 對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있는 사람이면 더욱좋다. 아니면 사전에 가는 곳에 대한 안내서적을 보고 가는것도 좋겠다. 외국사람들은 안내서적을 읽고 工夫하며 준비한다. 또는 먼저 경험한 이를 찾아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것도 좋겠다. 事前정보는 앞으로의 여행에 從前을 제공해주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것은 他人들과 共通經驗을 나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他動物과 달리 「앎」을 벗삼아 살아야 한다. 우리의 年齡이 증가하고 더욱 氣力體力이 다 감소되어도 「앎」은 가장 오래 남는 것 같다. 그때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젊어서 쌓아놓지않으면 매력이 없는 늙은이가 되는 것이다.

만일에 외국여행을 한다면, 방문국의언어를 배워가는것이 좋겠다. 대학생이 영어좁하는것은 당연한것이며 제2 외국어 몇마디는 아쉬운대로 배워가는것도 매우 흥미로운 준비가된다. 여행은 준비과정도 즐거운 추억이 되는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世界를 돌아보고, 世界를 무대로 世界市民이 되겠다는 꿈을 갖도록 키워야한다. 그리고 世界各國의 지도급 젊은이와 친구를 만들어 그들이 未來世界의 지도자가 될때는 現代지도자들같이 이방인으로 새롭게 人間關係를 맺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옛날에 맺어진 友情으로 좀 덜 싸우게 되지않을까 희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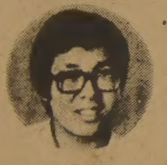
보내고 불러오고, 젊은이에게 친구와경험을 만나게 해주고싶다.

海外研修에서 寺刹巡禮까지

"外國에서 自身과 祖國 한번생각" "보름간 宗教와 對話"
"4년決算 양주 별산대 배우겠다" "精薄兒들과 한여름을"

◇裵聖建군

◇金善美양



◇李七永군

◇李善慶양

裵聖建 (延大경영과4년)

7월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실시될 대학생 해외연수에 참가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대학생 해외연수를 부유층 자녀들이나 가는 것으로 부정적으로보는 견해도 있는것같다. 그러나 나는 지난 4년간 책과 매스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일본 西歐등의 나라를 직접 가서 보고싶은 욕구를 키워왔고 그들과의비교를 통해 오늘의 내 나라와 나의위치를 가늠해 보고 싶었다. 나는 이번 연수비용마련을위해 군대 가기전 까지 고교생과외를 하면서 돈을 모았었고, 지난 1년간은 S기업에서 회사경리를 해주면서 돈을 벌었었다. 한달이라는 짧은 미국 체재기간이 내게 대단한것들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곳에서 만나볼교민들이나 선배들, 그리고 내가 피부로 느끼게될 「미국」이나의 삶의 경험을 확장시켜줄 것이라고 믿고있다.

金善美 (梨大무용과4년)

4학년이 된 여대생들은 대부분 나와 같은 심정일것이다. 과연 지난 4년간 무엇을 하고 지냈나 생각할때, 별로 뚜렷하게 내세울것이 없는것이다. 「중매가 들어왔다」「맞선을 보자」는 등 집안에서는 벌써부터 성화인데, 나는 도무지 흥이 나질않는다.

나는 5세때 무용을시작한 이후 춤이 좋아서 대학도 주위의만류를 뿌리치고 무용과를 택해 17년을 춤과 함께 생활했다. 마지막으로 맞는 여름방학에 양주별산대를 꼭 배우려고 마음 먹은것은 그동안 내가 배운 발레나 몇몇 한국무용에서는 탈춤의 흥과 추고난후의 후련함을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오는 23일께 경기도 양주로 찾아가 그곳 양주별산대놀이 기능보유자들로부터 탈춤을 배우면서 11월의 졸업 발표회등 남은 나의대학생활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李七永 (高大토목공학과3년)

이공학도인 나는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사상으로서의 불교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여름방학에 전국의 이름난 절을 순례해볼 생각을 갖고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대학1학년때 松廣寺에서 九山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만해도 나는 스님들을 소극적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생각했었다.

이달末께 慶北尙州 고운사에서 출발, 通度寺 海印寺 松廣寺로 이어지는 보름간의 사찰 순례를 하면서 더 많은 스님들과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3만원 정도의 돈과 밥을 해먹을 장비 몇개를 담은 배낭을 짊어지고 떠날 예정이며 가능하면 절과 절사이를 도보로 걸으면서 우연히 마주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인간의 情을 확인하려고 한다.

李善慶 (弘大응미과1년)

8월중순께로 예정된 작품전을 준비하고있는 정박아 40여명을 도와 그들과 함께 나무로 오리 토끼 참새들을 깎으면서 지내려고 한다.

처음 내방학계획은 선배들을소개로 글짓도안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를해서 용돈을 벌 생각이었다. 그러나, 신문에서 대학생들이 심신장애자돕기 봉사클럽을 조직했다는 기사를읽고 대학에 들어와 처음맞은 방학을 뜻깊게 보내고 싶어 이번에 나서게 되었다.

내가 할일은 나보다 나이가 서너살씩 위인 정박아들에게 도안에서부터 나무를 깎아 색칠하는 과정을도와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장성한 그들이 나를 너무따라 무섭기까지 했었다.

그들은 정에굶주려서 손을잡아주거나 머리를쓰다듬어 주는것을 아주좋아한다. 이번 그들과의 생활을통해 그들의 순수한 아름다운본능을 찾게해주어 모양은 곰흥해도 아주예쁜 토끼와 참새를 만들도록 도와주겠다.

얘기의 샘

세 울보들

처녀작「가난한 사람들」을 발표(脫稿)한 도스토예프스키는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 생각다못해 시인이며 비평가인 네크라소프에게·자기의 원고를 봐달라고 갖다 주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밤잠도 못자고 이틀동안을 기다렸지만 회답이 없어 비관하고 있는데 다음날 첫새벽 4시에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문을 열었더니 네크라소프와 친구하나가 뛰어 들어왔다. 셋은 감격이 복받쳐 아무말도 못한 채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것이었다.

꼬라비 사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어느날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수상이었다는 뉴스를 듣고, 자기의 막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옛날에 스탈린과 회견(會見)했을때 스탈린의 막료중에서 맨 끄트머리에 그런 이름의 사내가 있었던것 같아. 아마 틀림없이 그 사내일 거야」

브람스의 집

어떤 후배가 어느날 작곡가 브람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께서 사망하시면 선생께서 사신 이집에는 표찰이 붙을 겁니다」

남의 칭찬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품인 브람스는 이말도 하나의 칭찬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일이 있을리 없어」

후배 「아닙니다. 꼭 나붙을 겁니다」

브람스 「이사람, 그만두라니깐…」

후배 「셋집이 났다는 표찰말입니다」

한국일보 詩壇

親庭

李正淑

언제나 노을인,
아버지 사시는 집。

떠나 살기 20년。
어머니 음성은
노을 같은 울음。
纖纖은 꼭두새벽에도
노을진 어머니 음성。

어머니 버선 난 조심스레 걸은 길。
그 버선 신고 나도 걸은 길을
낯선 젊은 남자 딸려 보낼 때,
돌아서는 딸자식 뒤꼭지를 고며
노을로 화 뿌려진
나의 하늘。

언제나 노을인,
아버지 사시는 집。

토마스·만의 노벨文學賞작품 「魔의 山」 영화화

西獨서 제작비 56億들여
5시간짜리 TV 영화로
6개월 촬영… 스위스서 로케시작

◇「마의산」의 원작자 토마스·만。

【몽트뢰 (스위스)=外信】 토마스·만의노벨문학상수상작 「魔의 山」이 영화화된다.

「魔의 山」은 지난28년원작자인 토마스·만 자신도 영화로 만들수있는 서사적 작품임을 시사했으나 웬만한 외욕을 갖고 덤비지않는한 완성시키기 어려울것으로 예고했던 巨作。 결국 이작품은 만의 예언대로 지난50여년간 아무도 영화화를 시도하지 못했었는데 최근 서독의 제작자 프란츠·자이츠와 연출가 한스·W·가이센될퍼에 의해 TV영화로 만들어지게 된것이다.

「서독영화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를 들인 최고의 야심작」이될 「魔의 山」은 5시간짜리 TV영화로 만들어지며 앞으로 6개월간의 촬영에 제작비는 1천9백만마르크 (약56억원) 가 투입된다.

「魔의 山」은 토마스·만이 1912년 별로 심하지않은 폐질환으로 스위스의 다보스 요양원에서 휴양중이던 부인을 면회갔을때 느낀 인상을 토대로쓴 작품으로 만은 이작품으로 1929년에 노벨문학상을 탄바 있다.

이야기는 함부르크 선박주인의 아들인 24세의 청년 한스·카스토르프가 요양원에 있는 그의 사촌을 수주간 방문하기위해 「魔의 山」에 오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카스토르프는 죽음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삶과 사랑을 자랑하고있는 이상한 별난세계에 매료되어이곳에 머물게된다는 이야기。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觀光요금도 引上
최고 35%까지

바캉스철을 맞아 서울市를 위시한 전국각지의 관광여행요금이 10일부터 최고35·3%, 최하4·7%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달10일 교통부의 전세버스 교통요금인상 (평균27·3%)에 따라서울시관광협회의 국내관광요금을 평균15·5%인상조정, 시행토록 인가했다.

이에따라 당일코스의 경우 민속촌은 성수기(4월1일~6월10일, 7월1일~11월10일)에는 현행3천원에서 3천2백원으로, 비수기(6월11일~7월20일, 11월11일~3월31일)에는 2천1백원에서 2천2백원으로 올랐고, 1박2일의경우 설악산은 성수기때 1만8천3백원에서 2만7백원, 비수기 때에는 1만4천9백원에서 1만7천으로 각각 올랐다.

또 2박3일코스인 제주도 항공편은 성수기때 현행7만7천원이 10만2천5백원으로, 비수기때는 7만3천6백원에서 9만9천6백원으로 인상됐다.

관광요금은 왕복차편에다 기념품대 숙박비 식대 장비등이 모두 포함돼있다.

주요관광지별 요금인상용은 별표와 같다.

주간女性

대학생들 人類未來에 悲觀的

물질만능주의·도덕과 양심의 貧困우려
상당수가 戰爭공포…3次大戰발발 예측

慶熙大 국제평화硏
전쟁·平和觀등 조사

風速計

대학생들은 21세기의 인류사회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慶熙大국제평화연구소는 서울대, 연세대, 梨大, 한양대, 단국대등의 남녀대학생 5백6명 (남3백94명 여1백12명)을 대상으로 전쟁·평화·미래에대한 관심도를 조사, 이같은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응한 학생중 39%가 21세기의 인류사회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에비해 낙관적으로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의 반에 못미치는 19·4%였으며 낙관도 비관도 할수없다는 사람이 33·5%였다.

비관적인 이유로는 물질만능주의가 48·3%로 가장 많이 꼽혔고 고도의 기계문명의발달 38·3%, 핵전쟁발발14·8%, 폭력수단의발달 8·7%로 뒤를이었다.

남학생은 물질만능주의(51·6%)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으나 여학생들은 물질만능주의(35·4%), 고도의 기계문명의 발달(33·3%), 핵전쟁발발(25%)을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시했다.

21세기에 제기될 수있는 가장중요한 인류사회문제로는 도덕과 양심의 빈곤이 29·8%로 가장많이 지적됐다. 그뒤를 인구폭발(17·5%), 자원부족(12·5%), 식량부족(11·9%), 핵전쟁(11·5%)이 따랐다.

대학생들은 상당수가 전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58·4%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30%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필요치 않다」56·3%, 「필요하다」가 33·2%로 여학생의「전쟁이 필요하다」18·8%, 「필요없다」66%보다 전쟁을 더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남학생중 군대를 갔다온학생들은 (60·4%), 병역미필자 (54·6%)보다 전쟁을 더 싫어했다.

부득이할 경우의 국경분쟁, 경제침략, 종교·인종분쟁, 이데올로기대립, 자원확보전쟁등에 대한 반응도 전쟁에 대한 의견과 거의 비슷했다. 31·2%가 「괜찮다」고 했고, 68·7%가 여하한 전쟁도 반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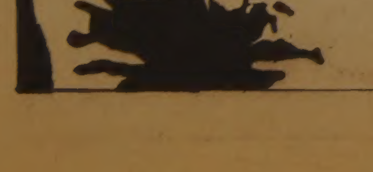
3차대전에 대해서도 62·9%가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예측한데비해 「그렇지않다」는사람은 20·4%밖에 되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날 대상지역으로는 중동(46·7%), 아시아 (40·9%) 가 가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 꼽혔다. 유럽은 7%, 아프리카는 3·6%였다.

전쟁이 일어날 위험요인으로는 이데올로기대립을 17·9%의 학생이 들었다. 그다음은 자연고갈 (12·8%), 인종및 종교적분쟁 (12·3%), 대중사회의 만연 (12%), 국제경제의 불평등 (11·8%), 핵무기발달(11·3%), 배타적국가주의(11%), 인구증가와 식량부족 (10·8%) 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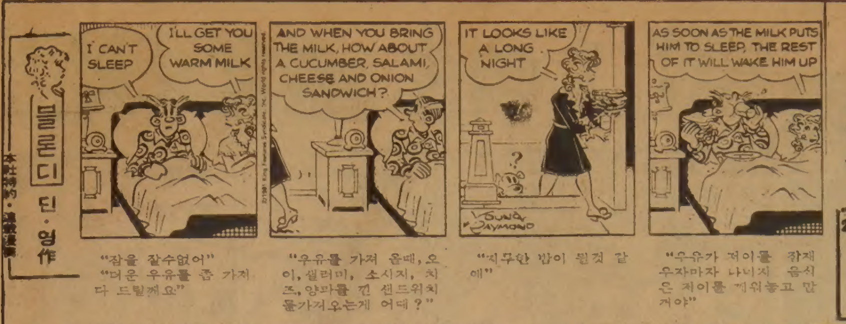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력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48·4%가 지적했다. 그뒤는 평화교육의 확대도 33·7%나 됐고 군비통제와 군축 (10·2%), 세계정부의 수립 (7·8%) 순이었다. 72·6%의 응답자가 현대세계에서 평화를 실현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불만을나타냈다. 【日】

구독신청은
533-2361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 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Burnhamthorpe
Hwy 10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Bloor St
Yonge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King St
Bay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잠을 잘수없어" "더운 우유를 좀 가져다 드릴께요"

"우유를 가져 올때, 오이, 샐러미, 소시지, 치즈, 양파를 낀 샌드위치를가져오는게 어때?"

"지루한 밤이 될것 같애"

"우유가 저이를 잠재우자마자 나머지 음식은 저이를 깨워놓고 말거야"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高位層"파는 詐欺

올被害5億

認·許융자·納品등미끼

정부고위층이나 청와대를 팔아 각종 이권에 관련된 사기사건이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아 금년들어 경찰에 단속된 사건만도 모두 29건에 61명 (구속)이며 피해액도 5억원에 달하고있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이사건들은 각종 금융특혜、국·공유지해제및 알선、인허가취득알선 정부공사수주및 납품알선、골재채취허가、취직알선등이 주종을 이루고있다。

이들에대한 단속을 계속중인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는 9일 면책자금 알선과 권리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3천여만원을 사취해온 3개파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인건、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光洙씨(42·전과8범·서울中大門區新內洞467)와 俊松雄씨(38·서울江東區[illegible]4洞장미아파트31棟903)등2명은 자난3월말께 서울永登浦에있는 新明전기대표 金信默씨(45)와 金씨의 형 燃默씨(47)에게 면책자금 50억원을 융자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4백25만원을 사취했다는것。

이들은 공범 [illegible]씨(40·서울冠岳區奉天洞559)를 정부 고위층의 면책자금심사위원이라고 소개까지 시켰는데 면책자금이란 실제 존재하지않는 항목의 자금이다。

또 崔는 新明전기제품인 복수전기용전기3백20대(싯가5억원상당)를 東亞건설에 납품시켜주겠다고 속여 교제비로 3백만원을 받아쓰기도 했다。

이밖에 전과7범 裵明鎬씨(42·서울九老區[illegible]洞250)와 전과5범인 金容燮씨(38·서울江西區新亭洞283의21)등은 지난2월 韓東元씨(49·서울永登浦)에게 수산시장의 임대권을 받아주겠다면서 4백35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萬病通治다" 식초로詐欺

서울시경은 9일 일부 식초제조업자들과 판매업자들이 식초를 만병통치약으로 과대선전하는데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1차로 판매업자인 金光浩씨(56·경기仁川市南區九月洞342의1)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식초제조업자인 仁川화영식품및 金山천연식품대표를 소환심문했다。

金씨는 지난1월20일 서울鍾路區廟洞179에 삼한스포츠 주식회사를 차리고 한일애초동우회라는 간판을 건뒤 金山천연식품으로부터 동회사제품인 현미식초 1.8ℓ들이 4만4천5백여병을 병당 8백원씩에 사들여 "식초가 고혈압·당뇨병·암·신경통·중풍등에 특효가 있고 생리불순등 36가지의 병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는 광고물을 뿌리며 병당 2천~2천5백원씩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전국 女子마라톤 創設 오는 11월1일 첫大會

전국여자마라톤선수권대회가 창설돼 그첫대회를 오는11월1일 열기로 결정했다。

오는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과 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창설된 42.195㎞마라톤풀코스에서 실시될 여자마라톤대회는 11월1일 낮12시 창동네거리를 출발、京畿도楊州군檜泉면 德亭리 검문소를 반환점으로 한코스에서 벌어진다。

참가자격은 만15세이상 45세미만으로 육상연맹의 등록을 필한자라야만한다。

연맹은 통과지점제한시간을 반환점은 1시간35분대、35㎞지점은 2시간35분대로 결정했다。

스포츠話題

챔피언 空席이면 1·2位가결정전 OPBF규정改正키로

東洋·太平洋권투연맹(OPBF)은 챔피언자리가 공석으로 남을경우 랭킹1、2위가 타이틀결정전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의무방어전 기간도 종래의 1년에서 6개월내로 단축、프로복싱의 활성화를 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헤비급、라이트헤비급、크루저급의 신설도 검토키로 했는데 오는9월중에 서울서 열리는 OPBF23차 정기총회에서 최종결정키로 했다。

「한국」과 「조선」

權寧大 〈한국에너지研 상임고문〉

十字春秋

한달포전 어느 대학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초청연사로 온 일본인학자 한사람이 발표도중 들어보라기도 하듯이 「조선인」이니 「남조선」이니하며 자못 옛날부터 자기네나라와 「조선」은 문화면에서 긴밀한 교류를 가져왔다고 늘어놓기에、어찌나 귀에 거슬리는지 참고 듣노라 무던히 애를 먹었었다。

그런데 더 괘씸했던 일은、자기네들의 관례에 따라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반도전체를 호칭할때는 「조선」이란 말을 쓰겠으니 여러분들은 그말을 「한국」으로 해석해달라고 주최측으로 하여금 양해를 구하게한 태도였다。

나이도 지긋한 영감이기에 이것은 내가 깨우쳐줄밖에 없다고 마음먹고 있던차、마침 만찬석상에서 내게 환영인사를 할 기회가 주어졌기에 인사말 끝에、외국의 석학에 대하여 실례가되지않도록 정중한 어조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공산당만이 쓰는 「조선」이란 말은 삼척동자도 쓰지않으니 그리알것과、설사 일본에서 일부 정치가나 언론인이 그런 말을 쓰고있다손치더라도、적어도 양식있는 학자들만은 그래선 안될줄아니 돌아가거던 동료학자들에게 인식시켜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였던 일이있다。

그때 봉석했던 우리학자들중에는 외국의 귀빈에게 무례한 발언을 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나 그런 오만불손한 일인들의 식민통치의 잔재는 보는 그즉시 싹을 자르지않으면 암세포모양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수있는 날은 영영 안올지도 모를것이다。

때마침 일본의 NHK가 「조선어강좌」를 내보내리라고한다。위에서 말한 일본학자의 말과 일치하는 마음보다 이것역시 단김에 도려내야할 일이다。

전에 일본의 노벨수상 물리학자를 초청하였더니 「조선」을 의식한나머지 오지못한일이 있었다。그러나 그동안의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은 역시 노벨수상자인 중국계 미국 물리학자 「양」박사가 중공에서의 회의를마치고 돌아가는길에 서울에 들려가도록하는데 성공하였다。못된 우월감에 젖어있는 일본학자일수록 자주 한국을 보여주어야겠다。

엄마·아빠가 함께보는 취미지 주 간 여 성
아내에 대한 선물 각 식품점서 판매중 $1.85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1000마리당 22달러
☎: 255-0730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533-0910 피터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1000마리당 22달러
☎: 532-3637 미스타 계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742-0800 미스타 차

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매매및 양도

빽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783-1984 김 대 성

그로서리 스토어 급매 : (코너스토어)
주매상 1만2천이상, 가격19만 달러
161 WITHROW AVE. (AT LOGAN) 토론토

스토아 급매 :
주매상 4천8백불, 권리금 3만3천
☎: 423-9899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이주관계상
매매코자 함, 2 베드룸 달려 있음
☎: 259-8139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465-400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가게매매 :
작은 가게를 원하시는 분 연락바람
☎: 656-7753

그로서리가게및 건물급매 :
2층 벽돌건물이며 경쟁이 없고 장래성이 많은 좋은 위치에 있음.
모게지 1st. 9.5%, 2nd 12.5%
458 CALEDONIA RD. ☎: 781-7080

포터블 세탁기 2년
액설런트 콘디숀 드라이어 6개월사용) 497-9180

FIRE PIT햄버거식당
주매상8천불~만불, 가격27만불, 리스20년 :
렌트170, 현찰3만불 요함 순이익 8천불
1-705-748-9722
미스타 김 또는 미스타 리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3 CLARKSON RD. MISSI. (오후 내방) 7시 까지 미스타 김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신사, 숙녀분들의 매니지먼트 훈련을 곧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알립니다.
실패의 기록이 없는 N. Y. S. E. (New York Stock Exchangc)를 대표한 부동산 기업체에서 $35,000~$75,000+매니지먼트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기업체에서는 1980년도의 세일즈 쿠오타에서 6개월만에 상당한 증가를 보였읍니다. 여러분중에 소망과 결단력, 투지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기업체에서 성공 하실수 있읍니다.
매니지먼트 훈련은 프로리다에서 6주동안 있겠읍니다. 모든 비용을 포함, 일년의 봉급은 약 $20,000이 되겠고 부동산 면허증을 꼭 가지신 분에 한합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은
☎: 661-1625 H. FRIENDLY CAN-AM ESTATE LTD. REAL EATATE BROKER에게 이에 대한 취지서(#OAI-505-81)를 부탁하셔서 상세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①관광지역에 위치하고 주유소를 겸용한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 & TAKE-OUT 스토아 매매
2 베드룸 포함, 1.5에이커 크기 ASKING $89,000
②바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매매, 그로스 $440,000이상, 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3베드룸, 아파트+2 베드룸 아파트렌트 월 $215 우편취급에 대한 매상 년 $11,000 ASKING $219,000
③관광지역, 타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3 베드룸 포함, 그로스 $300,000, 좋은 장비완비 되었음. ASKING $129,500
CALL : (705) 325-6039 IRVEN DEGRAW
WALTER DEAN REAL ESTATE LTD.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식 당

大 生 園
찐빵,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음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929-5048, 961-3539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769-0609 여 정 웅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커트, 파마 전문. 9시~오후8시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86 REXDALE BLVD. ☎: 746-0676 박 종 남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이삿짐 피아노, 쿨러 나라운수 ☎: 630-6602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흥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일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S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 판매
☎: 245-5122
32A REXDALE BLVD.
(AT ISLINGTON AVE.) 조 혜숙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961-1057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